

읽지 않았다면 몰랐을,

초대교회반 교재



데이비드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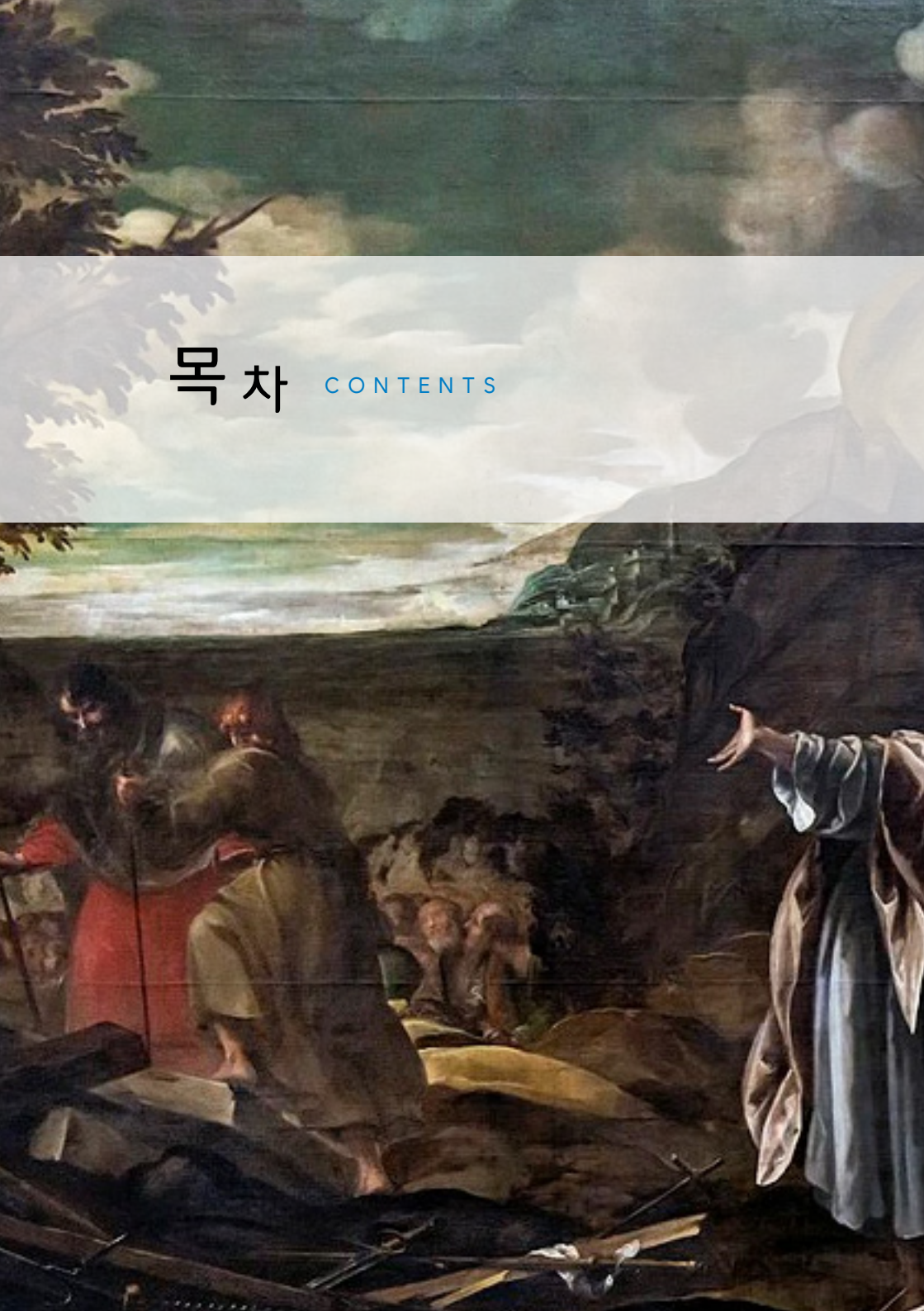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 이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을 배운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목 차 CONTENTS



제 1 장 초대교회의 형성과 시대적 배경 _ 5

제 2 장 초대교회의 영성의 핵심 _ 27

제 3 장 초대교회의 부흥 요소 _ 79

제 4 장 초대교회의 예배 방식 _ 135

제 5 장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비교 _ 201

제 6 장 초대교회의 유산 _ 246







1 장

/

초대교회의 형성과 시대적 배경

제 1 장 초대교회 형성과 시대적배경

훈련 목적

- *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 * 현대교회가 배워야하는 초대교회 비밀 파악하기
- * 예수께서 원하는 초대교회 스타일 파악하기
- * 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좋아했는지 이유 파악하기
- * 초대교회의 독특한 예배, 집회, 모임, 훈련 파악하기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1. 초대교회의 정의와 시대 구분

가. 초대교회의 개념과 범위 (AD 30-313)

1) 오순절 성령강림부터 콘스탄티누스 공인까지

a. 교회 탄생의 결정적 순간

- 초대교회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AD 30년경)부터 시작하여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밀라노 칙령(AD 313)까지의 약 280년간의 교회를 지칭합니다.
- 사도행전 2장 1-4절은 이 역사적 순간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b. 초대교회 시대의 역사적 의의

-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그의 저서 「교회사」 1권에서 이 시기를 "사도들이 직접 복

밀라노 칙령(313년)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발표한 것으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신앙 자유를 보장하고 박해받던 기독교의 재산을 돌려주도록 한 법령입니다. 이로써 기독교 박해가 끝나고 공인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는 4세기 초 로마의 역사학자이자 주교였던 가이사리아의 유세비우스가 쓴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부터 324년경까지 교회의 역사를 다룹니다. 초대교회의 성장, 사도들의 활동, 박해와 순교, 이단 논쟁,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여, 초대교회 역사를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습니다.

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영광스러운 시대”라고 묘사했습니다.

- 이 기간은 교회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신앙과 열정을 유지했던 시대로, 박해 속에서도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 터툴리아누스는 「호교론」 50장에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는 초대교회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c. 초대교회 시대의 범위와 구분

- 이 280년의 기간은 단순히 시간적 구분만이 아니라, 교회가 유대교의 한 분파에서 시작하여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보편적 종교로 성장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 이 시기 동안 교회는 조직을 체계화하고, 정경을 확립하며, 신학적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터툴리아누스의 「호교론」(Apologeticus, 약 197년경)은 로마 당국의 기독교 박해에 대응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이 저술에서 그는 기독교가 국가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에 유익한 종교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우상숭배와 비도덕성을 비판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과 가치를 변호했습니다. 특히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박해가 오히려 교회의 성장을 이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2)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의 구분

a. 사도시대 (AD 30-100)의 특징

- 사도시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인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기로, 교회의 기초가 놓인 시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고 선언합니다.
- 이 시기에 베드로, 바울, 요한 등의 사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으며, 신약성경의 대부분이 기록되었습니다.

b. 사도들의 독특한 권위와 역할

-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로서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 이들은 교회의 교리를 확립하고, 이단을 대적하며, 교회 조직의 기초를 놓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c. 속사도시대 (AD 100-313)의 전개

- 속사도시대는 사도들의 직접 제자들과 그 후계자들이 교회를 이끌었던 시기입니다.
-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교부(Church Fathers)'라고 부르며,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클레멘트 1서, AD 96년경)은 "사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기록하여 사도적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부(교부)는 초대교회와 고대 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세운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대략 2세기부터 8세기까지 활동했으며, 성경 해석, 이단 반박, 교회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와 가까운 사도 교부, 박해 속에서 신앙을 변호한 변증가, 그리고 삼위일체와 기독교론을 정립한 니케아 이후 교부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이룬 인물들입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1세기 말 로마 교회의 지도자이자 사도 교부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클레멘트 1서'를 보내 교회의 질서와 지도자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신약성경 이후 가장 오래된 기독교 문헌으로 초기 교회의 전통과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d. 속사도 시대의 주요 교부들

- 이 시대의 중요한 인물로는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AD 35-108), 서머나의 폴리카르푸스(AD 69-155), 리옹의 이레나이우스(AD 130-202), 카르타고의 터툴리아누스(AD 155-240) 등이 있습니다.
-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하기까지 일곱 교회에 서신을 남겼고, 폴리카르푸스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주교를 주님의 모형으로, 장로들을 하나님의 공회로 여기자"고 권면했습니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1~2세기 활동한 초대교회 교부로, 안디옥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가까운 세대에 속하며, 교회의 질서와 순교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서머나의 폴리카르푸스는 1~2세기 초대교회의 교부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사도적 계승자입니다.

리옹의 이레나이우스(AD 130~202)는 2세기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리옹(현재 프랑스)의 주교입니다. 그는 이단 사상을 반박하고, 정통 신앙을 수호하는 데 힘썼습니다.

카르타고의 터툴리아누스(약 AD 155~240)는 2~3세기 초대교회의 교부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변호하고 로마의 박해에 대응하기 위해 **『아포칼립스』**를 저술했습니다.

나. 로마제국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

1)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교 전통의 교차점

a. 헬레니즘 세계관과의 만남

- 초대교회는 헬레니즘이라는 거대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 지중해 세계는 그리스 문화와 언어로 통일되어 있었고, 이는 복음 전파에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 사도행전 17장 16-34절에 기록된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헬레니즘 철학자들과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출발점으로 삼아 창조주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헬레니즘은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 동지중해와 중동 지역에 퍼진 그리스 문화와 사상, 언어가 혼합된 시대적·문화적 배경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기원전 356~323)은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으로, 짧은 생애 동안 페르시아 제국과 이집트, 인도까지 정복하며 동서 문화를 연결한 인물입니다.

b.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학의 대화

-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스트로마테이스(Stromata)」에서 "철학은 그리스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육자였다"고 주장하며, 그리스 철학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2~3세기)는 초대교회의 교부로,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앙을 조화시키려 했습니다.

- 로고스(Logos) 개념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서 사용되어, 헬레니즘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c. 유대교 전통의 토대

- 동시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초대교회는 구약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고,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과 윤리적 가르침을 계승했습니다.

2) 팍스 로마나와 복음 전파의 환경

a. 로마의 평화가 만든 선교적 기회

- 팍스 로마나(Pax Romana, 로마의 평화)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약 200년간 지속된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에 가장 적합한 시기를 선택하셨음을 암시합니다.
- 오리게네스는 「켈수스 반박문」 2.30에서 "만약 많은 나라들이 각자의 왕을 가지고 있었다면,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팍스 로마나(Pax Romana)는 로마 제국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약 200년간 유지한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말합니다.

오리게네스(185~254년경)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초대교회 교부이자 신학자입니다. 그는 성경 해석과 신학 연구에 깊은 공헌을 했으며, 특히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통해 문자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구분하고 신앙 교육에 활용했습니다.

b. 로마의 도로망과 교통 체계

-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제국 전역을 연결하는 훌륭한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이 도로들은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되었지만, 선교사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 사도 바울은 세 차례의 전도여행을 통해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을 순회할 수 있었고, 로마서 15장 19절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증언합니다.

c. 코이네 그리스어의 보편성

-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 코이네 그리스어는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는 언어의 장벽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 신약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며, 70인역(LXX) 구약성경 번역본 역시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코이네 그리스어는 알렉산더 대왕 시대 이후 지중해와 중동 지역에서 널리 사용된 공용 그리스어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신약성경과 70인역(LXX) 구약성경이 이 언어로 기록되었으며, 다양한 민족과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통 언어 역할을 했습니다.

다원주의는 사회나 문화, 종교, 사상 등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3) 다원주의 종교 사회 속의 기독교

a. 로마 제국의 종교적 관용과 한계

- 로마는 기본적으로 종교적 관용정책을 펼쳤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6절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 뿐"이라고 말합니다.
- 로마는 정복한 민족들의 신들을 자신들의 판테온에 포함시켰지만, 기독교의 배타적 유일신 신앙은 이러한 다원주의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b. 황제 숭배와 기독교의 충돌

-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격화하여 제국의 통합을 도모했습니다.
-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가이사는 주님이시다(Caesar is Lord)"라는 고백을 거부하고 "예수는 주님이시다(Jesus is Lord)"고 고

백했습니다.

- 계시록 2장 13절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여,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결과로 순교한 성도들을 언급합니다.

c. 미스터리 종교들과의 경쟁

- 당시 로마 제국에는 미트라교, 이시스 숭배, 디오니소스 제의 등 다양한 밀교(Mystery Religions)들이 유행했습니다. 이들은 구원과 내세의 소망을 제시했지만,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

미트라교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어 로마 제국에서 유행한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하는 신비종교입니다.

이시스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숭배된 여신으로, 결혼과 출산, 마법과 보호를 담당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숭배된 포도주와 축제, 광란의 신입니다.

이며”라고 선언하여,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기초를 강조합니다.

2.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확장

가.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의 의미

오순절은 예수님의 승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 성령 강림의 예언적 성취

a. 구약의 예언 성취

- 오순절 성령강림은 구약의 여러 예언들의 성취였습니다.
- 요엘 2장 28-29절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라고 예언했습니다.
-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16-17절에서 이 예

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b. 새 언약 시대의 개막

- 예레미야 31장 31-34절에서 예언된 새 언약이 성령강림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 이레나이우스는 「이단 반박」 3.12.1에서 “성령께서는 사도들 위에 임하셔서 모든 민족들을 생명의 입구로 인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 성령의 임재는 더 이상 성전이나 특정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믿는 자 개개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c. 교회 시대의 공식적 시작

- 오순절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이는 단순한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이레나이우스(AD 130~202)는 2세기 초 대교회의 교부로, 프랑스 리옹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 사도행전 2장 41절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고 기록하여, 교회의 폭발적인 시작을 보여줍니다.

2) 방언의 은사와 보편적 복음

a. 바벨탑의 저주를 뒤집는 은혜

-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인류가 흩어졌다면, 오순절의 방언은 그 저주를 은혜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도행전 2장 5-11절은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예시하는 표징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성경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인간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온 세상에 흩어신 이야기를 말합니다.

b. 보편적 구원의 선포

- 방언의 은사는 구원이 특정 민족이나 언어 집단에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 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선언합니다.
- 초대교회는 이 원리를 따라 모든 민족과 계층을 포용하는 보편적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나. 초기 신자 공동체의 형성

1) 공동체적 삶의 실천

a. 재산의 공유와 나눔

- 사도행전 2장 44-45절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강제

적인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온 자발적 나눔이었습니다.

-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만 모범을 보였습니다(행 4:36-37).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로 사유재산과 계급을 없애고 생산수단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정치·경제 사상입니다.

b. 매일의 교제와 예배

- 사도행전 2장 46-47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묘사합니다.
- 「디다케」 14장은 "주의 날에는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일 예배의 전통이 일찍부터 확립되었음을 보여줍니다.

c.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헌신

-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기록함

니다.

-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사도들로부터 배우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후에 신약성경으로 기록되어 보존되었습니다.

2) 성장과 조직의 발전

a. 집사 제도의 확립

- 교회가 성장하면서 행정적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6절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일곱 집사를 세운 일을 기록합니다.
- 이는 교회가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균형 있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적 발전이었습니다.

b. 장로와 감독의 역할

집사는 교회의 직분 가운데 하나로, 교회와 성도들의 실질적 봉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로는 교회의 지도 직분 중 하나로, 교회의 영적 지도와 목회적 책임을 맡는 사람을 말합니다.

감독은 교회의 직분 중 하나로, 교회의 신앙과 질서를 지키고 성도를 돌보는 책임을 가진 지도자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라고 기록합니다. 디도서 1장 5-7절은 장로와 감독의 자격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4장에서 “감독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고 권면하여 교회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나바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이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동역자입니다.

다. 스테반의 순교와 교회의 분산

1)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a. 스테반의 설교와 증거

-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테반의 설교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고,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했듯이 의인 예수를 죽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테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집사이자,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 그의 설교는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벗어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행 7:48)라고 선언하여, 예배의 본질적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b. 순교의 영적 의미

- 스테반의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죽음이었습니다.
- 사도행전 7장 59-60절은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십자가 상의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2) 박해와 교회의 확산

a. 예루살렘 교회의 분산

- 사도행전 8장 1절은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기록합니다.
- 이 박해는 역설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b. 흩어진 자들의 복음 전파

- 사도행전 8장 4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라고 기록합니다.
- 터툴리아누스는 「호교론」에서 "우리를 더 많이 베어낼수록 우리의 수는 더욱 늘어난다.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씨앗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박해는 오히려 교회 성장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터툴리아누스(약 AD 155~240)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활동한 초대교회 교부이자 변증가입니다.





2 장

/

초대교회의 영성의 핵심

제 2 장 초대교회의 영성의 핵심

훈련 목적

- *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 * 현대교회가 배워야하는 초대교회 비밀 파악하기
- * 예수께서 원하는 초대교회 스타일 파악하기
- * 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좋아했는지 이유 파악하기
- * 초대교회의 독특한 예배, 집회, 모임, 훈련 파악하기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1. 사도적 가르침의 중심성

가. 케리그마(복음 선포)의 내용

1)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a. 복음의 핵심 메시지

-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서 이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전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 이 구절은 초대교회가 전한 케리그마의 정형화된 형태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

할 점은 바울이 이것을 자신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사도적 전통이 충실히 전수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이러한 케리그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18-19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태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다윗의 씨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시고 세례를 받으셨으니, 이는 그의 수난으로 물을 정결케 하려 하심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에게는 마리아의 동정과 그녀의 출산, 그리고 주님의 죽음이 감추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신비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큰 외침의 신비들입니다."
- 초대교회는 이 메시지를 단순히 역사적 사

실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며,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음을 증명했고(행 2:25-31),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 53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했습니다(행 8:32-35).

b.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적 의미

-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는 초대교회 신앙의 독특성을 보여줍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형은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이었지만, 그

[행 2:25]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행 2:26]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허가 즐거워하였으며 또한 내 육체가 희망 중에 거하리니, [행 2:27]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자로 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줄을 내가 알았음이다. [행 2:28]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리로다." [행 2:29] 형제들아, 내가 다윗에 관하여 자요로이 말하노니 그는 죽어 장사지낸 자요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행 2:30]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였으니,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이가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그의 후손에 관하여 말한 것이라. [행 2:31] 다윗은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씩음을 당함을 알았으나, 미리 말씀하신 바를 증거함으로 그리스

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를 영광과 승리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리옹의 이레나이우스는 「이단 반박」 5권 1장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을 때, 그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온 창조 세계에 퍼져 계셨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포괄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보이지 않는 형태로 만물 안에 십자가의 형상을 새기셨습니다."
- 부활에 대한 초대교회의 이해는 더욱 혁명적이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소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22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도의 부활을 보게 되었느니라.

[행 8:32]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행 8:33] 그의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행 8:34]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이나? 자기를 가리킵이나? 타인을 가리킵이나? [행 8:35]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리옹의 이레나이우스(AD 130~202)는 2세기 초대교회의 교부로, 프랑스 리옹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선포합니다.

-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스트로마테이스」 6권에서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 육체는 이미 존재했으므로 - 육체로부터의 부활이었습니다. 즉, 정욕과 죄로부터의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으므로,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우리가 죄에서 일어나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c.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의 그리스도 사건

-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구약 전체의 완성으로 이해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약 150~215년)는 초대교회의 교부로,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앙을 조화시키려 한 신학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4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러한 구약의 그리스도론적 해석은 초대 교회 설교의 특징이었습니다. 스테반은 그의 긴 설교(행 7장)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수렴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 53장을 설명하면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행 8:35)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유스티누스 마르티르는 「트리포와의 대

유스티누스 마르티르(AD 100~165)는 초대 교회의 교부이자 순교자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화」에서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다고 설명합니다.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이사야가 말한 대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피로 그들의 집, 즉 그들 자신을 구원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구약의 제사 제도, 절기, 예언, 시편, 역사적 사건들을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재해석했습니다.

2)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

a. 회개의 필요성과 본질

-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은 항상 회개의 요구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의 절정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행 2:38)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

서 회개(메타노이아)는 단순한 후회나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 「디다케」 7장은 세례를 받기 전의 준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회개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를 베푸는 자와 받는 자는 금식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금식하게 하라. 세례받을 자는 세례받기 하루나 이틀 전에 금식하도록 명하라.” 이러한 금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 터툴리아누스는 「회개론」에서 회개의 철저함을 강조합니다. “회개는 삶의 문제입니다. 이전의 죄들을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지듯이, 회개도 그 행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는 특히 우상숭배, 음행, 살인과

디다케(“교훈서”라는 뜻)는 초대교회에서 기록된 초기 기독교 교리 및 생활 지침서입니다.

터툴리아누스(약 AD 155~240)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활동한 초대교회 교부이자 변증가입니다.

같은 큰 죄들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요구했습니다.

- 초대교회는 회개를 일회적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신자들도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헤르마스의 「목자」는 세례 후의 회개 문제를 다루며, 한 번의 중대한 회개 기회가 더 주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후에 교회의 참회 제도로 발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공개적인 죄의 고백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의 참회를 실천했으며, 이를 통해 죄인의 회복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헤르마스는 2세기 초대교회에서 활동한 신앙인으로, 「목자서(The Shepherd of Hermas)」의 저자입니다.

b.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 초대교회는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31절에서 빌립보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대답은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 그러나 초대교회는 믿음을 단순한 지적 동의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20절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파이다고고

스」 1권에서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영혼의 동의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하며, 선행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 초대교회는 또한 믿음이 성령의 선물임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당시의 유대교적 율법주의나 헬라 철학의 자기 구원 사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 디다케(교훈)의 실천

1) 제자도의 삶

a.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본질

-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대위임령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제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 「디다케」는 그 첫 부분에서 "두 길의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두 길이 있으니,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이며,

이 두 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느니라. 생명의 길은 이것이니, 첫째로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지 않는 것은 너도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황금률을 구체적인 생활 지침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 초대교회의 제자도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은 일상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썩어질 음식이나 이 세상의 쾌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빵, 곧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원하며, 그분의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것

은 썩지 않는 사랑입니다.”

- 제자도는 또한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의미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14절은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권면합니다. 초대교회는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기대했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b. 일상 속의 제자도 실천

- 초대교회는 제자도를 특별한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신자의 일상적 삶의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24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모든 일상 활동이 예배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 「디다케」 4장은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내 아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전하는 자를 기억하고, 그를 주님처럼 공경하라. 왜냐하면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날마다 성도들을 찾아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안식을 얻으라.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다투는 자들을 화평케 하라. 의롭게 판단하며, 허물을 책망할 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 초대교회 신자들은 매일의 기도 생활을 통해 제자도를 실천했습니다. 「디다케」 8장은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나, 너희는 수

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라.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복음에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며 주기도문을 제시합니다. 하루에 세 번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 직업 생활에서도 제자도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8절은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노동을 영적 섬김으로 승화시키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2) 윤리적 가르침의 강조

a. 사랑의 실천

- 초대교회 윤리의 중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8절은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 폴리카르푸스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2장에서 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자비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모든 분노와 편파와 불의한 판단을 멀리하며, 탐욕을 멀리하고, 누구에 대해서도 성급히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빛을 지고 있음을 알고,

폴리카르푸스(AD 69~155)는 초대교회 시대의 주교이자 순교자로, 스데반 이후 초기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고 가르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사랑의 실천은 원수 사랑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은 초대교회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유스티누스 마르티르는 「제1호교론」 14장에서 이를 증언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부당하게 미워하는 자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가르침에 따라 살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와 함께 같은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 초대교회는 사랑을 공동체 생활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믿는 우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

유스티누스 마르티르 (AD 100~165)는 초대 교회의 교부이자 순교자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재산 공유는 법적 강제가 아니라 사랑의 자발적 표현이었습니다.

b. 거룩한 삶의 추구

- 초대교회는 신자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7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가르칩니다.
- 「디다케」는 피해야 할 죄들의 목록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내 아들이, 모든 악에서 도피하고 그와 비슷한 모든 것에서도 도피

디다케(“교훈서”라는 뜻)는 초대교회에서 기록된 초기 기독교 교리와 생활 지침서입니다.

하라.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살인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질투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성급하지 말라. 이 모든 것에서 살인이 나온다. 내 아들이, 정욕을 품지 말라. 정욕은 음행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눈을 높이 뜨지 말라. 이 모든 것에서 간음이 나온다.”

- 거룩한 삶은 또한 진실과 정직을 포함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가르칩니다. 초대교회는 맹세를 금지하고(마 5:34-37), 항상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터툴리아누스는 「호교론」 45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우수성을 변호합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으며, 독신 생활을 하거나 한 사람과만 결혼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방탕한 잔치를 피하며, 절제를 실천

터툴리아누스(약 AD 155~240)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활동한 초대교회 교부이자 변증가입니다.

합니다. 우리는 불의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선으로 악을 갚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니다.”

2. 공동체 중심의 영성

가. 코이노니아(교제)의 실천

1) 물질의 나눔과 공유

a. 자발적 공유 생활의 원리

- 초대교회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자발적인 재산 공유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45절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공산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한 자발적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 바나바의 예는 이러한 나눔의 모범을 보여 줍니다. 사도행전 4장 36-37절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을 때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헌신은 다른 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나눔이 항상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행 5:1-11)은 위선적인 나눔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베드로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행 5:4)라고 말하여, 재산 헌납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이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 「디다케」 4장은 나눔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손으로 일한 것에서 네 죄의

속함을 위해 구제하라. 주기를 주저하지 말고, 줄 때 불평하지 말라. 누가 좋은 값을 주는 자인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궁핍한 자를 물리치지 말고, 모든 것을 네 형제와 함께 나누며, 아무것도 네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만일 썩지 않을 것들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라면, 하물며 썩을 것들이겠는가?”

- 유스티누스 마르티르는 「제1호교론」 67장에서 주일 예배 시 헌금의 사용을 설명합니다. “여유가 있고 원하는 자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자신이 정한 것을 내며, 모인 것은 지도자에게 맡겨집니다. 그는 고아와 과부,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궁핍한 자들, 갇힌 자들, 나그네들을 돕습니다. 한 마디로 그는 모든 궁핍한 자들을 돌봅니다.”

유스티누스 마르티르(AD 100~165)는 초대 교회 교부이자 순교자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b. 필요에 따른 분배의 실천

- 초대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행 2:45, 4:35) 분배하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이는 평등주의적 분배가 아니라 실제적 필요에 기초한 분배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고린도후서 8장 13-15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 때에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 야고보서 2장 15-16절은 실천 없는 동정의 무익함을 지적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초대교회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어떤 부자가 구원받을 것인가?」라는 논문에서 부의 올바른 사용을 가르칩니다. "부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악합니다. 부는 도구이며, 올바르게 사용하면 선을 낳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형제들과 나누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약 AD 150~215)는 초대교회의 교부로,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앙을 조화시키려 한 신학자입니다.

2) 영적 은사의 상호 교류

a.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

- 초대교회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한 몸 안에서 조화롭게 작동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7절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칩니다.

-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8-10절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 이레나이우스는 「이단 반박」 5권 6장에서 그의 시대에도 은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형제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성령을 통해 여러 언어로 말하며,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고, 하

리옹의 이레나이우스(AD 130~202)는 초대 교회 교부이자 리옹 교회의 주교입니다.

나님의 신비를 설명하는 것을 듣습니다.”

- 초대교회는 은사의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됨을 유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13절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설명합니다.

b. 상호 의존적 관계의 중요성

- 초대교회는 각 지체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22절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라고 가르칩니다.

- 로마서 12장 4-6절은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 에베소서 4장 15-16절은 상호 연결된 성장의 아름다운 그림을 제시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나. 디아코니아(섬김)의 정신

디아코니아(Diaconia)는 초대교회에서의 봉사(봉사와 섬김)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1) 과부와 고아를 돌봄

a. 구제 사역의 체계화

-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 특히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을 중요시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은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랑을 원망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곱 집사가 선출되었고, 이는 교회 구제 사역의 체계화를 보여줍니다.
-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참된 신앙이 반드시 실천적 사랑으로 나타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 디모데전서 5장 3-16절은 과부를 돌보는

헬라파 유대인 (Hellenistic Jew)은 그리스 문화(헬라문화)를 받아들인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3절)고 시작하여, 과부 명부에 올릴 자격(9-10절), 젊은 과부에 대한 지침(11-15절), 가족의 책임(4, 8, 16 절) 등을 상세히 다룹니다. 특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8절)는 말씀은 가족 부양의 일차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 유스티누스 마르티르는 「제1호교론」 67장에서 주일 예배 후 헌금의 사용을 설명하며, "고아와 과부,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궁핍한 자들"이 우선적인 도움의 대상이었음을 증언합니다. 폴리카르푸스도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6장에서 장로들의 의무로 "병든 자를 방문하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명시합니다.

유스티누스 마르티르(AD 100~165)는 초대 교회 교부이자 순교자이며,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b. 실천적 사랑의 표현

- 초대교회의 구제는 단순한 물질적 도움을 넘어 전인적 돌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39절의 도르가(다비다)의 예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옴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겹옷을 다 내보이거늘."
- 헤르마스의 「목자」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을 금식보다 더 나은 것으로 가르칩니다. "보라, 이것이 주님께 받으실 만한 금식이니라.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려는 날에, 빵과 물 외에는 아무것도 맛보지 말고, 네 음식을 위해 쓰려던 것을 계산하여 그 날 그것을 과부나 고아나 궁핍한 자에게 주라."
- 초대교회는 또한 입양을 통해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디다스칼리아」는 "고아를 입

헤르마스는 2세기 초대교회 신앙인으로 「목자서(The Shepherd of Hermas)」의 저자입니다.

디다스칼리아(Didascalia)는 초대교회 교회법과 생활 지침을 담은 문서입니다.

양하는 자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한 자선을 넘어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2) 집사 제도의 확립

a. 집사 선출의 기준과 과정

- 사도행전 6장 1-6절은 집사 제도의 시작을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3-4절)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교회 사역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보여줍니다.
- 집사의 자격에 대해 디모데전서 3장 8-13절은 상세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

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 「디다케」 15장은 “너희는 스스로 감독들과 집사들을 선출하라. 그들은 주님께 합당한 자들, 온유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진실하고 검증된 자들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언자들과 교사들의 직무를 너희에게 수행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b. 섬김의 리더십 모델

- 집사 제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섬김의 리더십을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45절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가르칩니다.

- 초대 일곱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사역은 집사의 역할이 단순한 구제 사역을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은 그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5-13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것(26-40절)을 기록합니다. 스테반 역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행 6:8)였습니다.
- 이그나티우스는 「트랄레스 교회에 보낸 서신」 3장에서 집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르며, “그들은 음식과 음료의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종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집사직의 영적 차원을

이그나티우스(AD 35~108)는 초대교회 교부이자 안디옥 교회의 주교입니다.

보여줍니다.

- 폴리카르푸스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5장에서 집사의 품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집사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모든 비난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그들은 중상하는 자나 일구이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비롭고, 신중해야 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폴리카르푸스(AD 69~155)는 초대교회 서머나(오늘날 이즈미르) 교회의 주교이자 순교자입니다.

3. 기도와 예배의 영성

가. 끊임없는 기도 생활

1) 정해진 기도 시간

a. 유대교 전통의 계승과 변형

-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하루 세 번 기도 전통

을 창조적으로 계승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라는 관습은 초대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은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더니"라고 기록하며, 사도행전 10장 9절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제 육 시에 지붕에 올라가니라"고 언급합니다.

- 「디다케」 8장은 이러한 기도 관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회당과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 너희는 주님이 복음에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제시한 후 "하루에 세 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아침(제3시), 점심(제6시), 저녁(제9시)의 기도를 의미했습니다.
-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 41장은 더욱 상세한 기도 시간표를 제공합니다. "새벽

"제 육 시에"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식 시간 계산에서 하루를 12등분하여 오전과 오후를 구분. 제 육 시는 정오(낮 12시) 또는 저녁 6시를 의미할 수 있으며, 문맥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정오 12시에 기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대 교회와 성경에서 사용하는 시간 표기 방식에서,
아침 (제 3 시) → 약 오전 9시
점심 (제 6 시) → 약 정오 12시
저녁(제 9시) → 약 오후 3시

히폴리투스 (AD 170~235)는 초대교회의 로마 교부이자 신학자입니다.

에 일어나 기도하고, 제3시에 기도하라.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다. 제6시에도 기도하라.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실 때 낮이 나뉘고 큰 어둠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9시에도 힘있게 기도하라.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옆구리를 찔리사 물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다.”

- 터툴리아누스는 「기도론」 25장에서 이 전통을 설명하며, “물론 기도의 의무와 직무는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이러한 관례를 지키는 것이 유익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또한 밤중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밤에도 일어나 기도하라. 그 시간에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이다”라고 권면합니다.

터툴리아누스(약 AD 155~240)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활동한 초대교회 교부이자 변증가입니다.

b. 시간 성화의 영적 의미

- 초대교회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 것은 단

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행위였습니다. 시편 55편 17절의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라는 말씀은 하루 전체를 기도로 감싸는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초대교회 기도 생활의 이상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스트로마테이스」 7권에서 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는 거룩한 축제입니다. 그의 제사는 기도와 찬양과 성경 읽기입니다. 식사 전에, 식사할 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밤중에 일어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마음 속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 오리게네스는 「기도론」 12장에서 기도의 자세와 방향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모

오리게네스는 3세기 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성경 해석과 신학 체계화에 큰 기여를 했지만, 일부 독창적인 사상으로 인해 후대에 논쟁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든 방향 중에서 동쪽이 가장 좋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상징적으로 영혼이 떠오르는 참 빛을 바라보아야 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습은 그리스도를 “돋는 해”(눅 1:78)로 보는 신학적 이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눅 1:78] 이는 우리 하나님
의 공화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
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2) 공동체 기도와 개인 기도의 조화

a. 합심 기도의 능력과 실천

-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20절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약속은 공동 기도의 신학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합심 기도를 여러 차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기록하며, 사도행전 4장 24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후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들어"기도했다고 증언합니다.
- 특별히 사도행전 12장 5절과 12절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의 교회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간절한 합심 기도는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출로 응답받았습니다.
-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5장에서 공동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

이그나티우스는 2세기 초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로, 안디옥의 주교였습니다.

합니다. "자주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이 자주 함께 모일 때, 사탄의 세력은 무너지고 그의 파괴력은 여러분의 일치된 믿음으로 인해 소멸됩니다."

b. 골방 기도의 중요성과 균형

- 초대교회는 공동 기도와 함께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가르침은 개인 기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 예수님 자신이 개인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중요한

결정 전에 홀로 기도하셨음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눅 6:12, 9:18, 11:1).

-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스트로마테이스」 7권에서 개인 기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주 조용히 속삭인 다 해도, 소리 없이 마음 속으로만 외친다 해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들으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을 들어 손을 거룩함 가운데 펼치며, 육체보다 영을 일으켜 세우고, 땅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날개를 펼쳐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활동한 기독교 신학자이자 교부입니다. 그는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앙을 조화시키려 노력한 인물로, 오리게네스의 스승이 기도했습니다.

나. 성령 충만의 추구

1) 은사의 다양성과 하나됨

a. 성령의 은사들의 나타남

- 초대교회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활발

하게 나타나는 공동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10절은 아홉 가지 은사를 열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 이러한 은사들은 초대교회의 일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기록하며,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은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할까 너희가 모임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라고 당시 예배의 역

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 이레나이우스는 「이단 반박」 2권 32장에서 그의 시대에도 은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형제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성령을 통해 모든 종류의 언어로 말하며,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숨겨진 것들을 빗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하는 것을 듣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고 우리와 여러 해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2세기 후반에 활동한 초대 교부이자 리옹의 주교입니다. 그는 특히 영지주의라는 초기 기독교 이단에 맞서 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b. 사랑의 우선성과 은사의 목적

- 그러나 초대교회는 은사 자체보다 사랑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라고 선언합니다.

- 은사의 목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합니다.
- 크리스소스토무스는 「고린도전서 설교」에서 사랑과 은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사는 시간이 지나면 그칠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은사는 부분적이지만, 사랑은 완전합니다. 은사는 교만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랑은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구하되, 더욱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크리스소스토무스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활동한 동방 교회의 위대한 교부이자 설교가입니다. 그의 이름인 '크리스소스토무스(Chrysostomus)'는 그리스어로 '황금의 입'이라는 뜻으로, 그의 뛰어난 설교 능력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2) 예언과 방언의 역할

a. 예언의 은사와 그 기능

- 예언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은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예언의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에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 사도행전 11장 27-28절은 아가보의 예언을 기록합니다: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예언하니." 이 예언은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에 성취되었고, 교회에 이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 「디다케」 11장은 예언자들에 대한 상세한

디다케(Didache)는 '열두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부제가 붙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문서입니다. 19세기 말에 발견되어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사도 시대와 가까운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침을 제공합니다. "누구든지 영으로 말하는 선지자를 시험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는 아니니, 주님의 품성을 가진 자만이 선지자다. 그러므로 그들의 품성으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알 수 있을 것이다."

b. 방언의 은사와 질서

- 방언은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인 은사였지만,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28절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라고 규정합니다.
- 방언의 표적적 기능도 중요했습니다. 고린

도전서 14장 22절은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오순절의 방언(행 2장)과 고넬료 가정의 방언(행 10장)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열렸음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 이레나이우스는 방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의 시대에도 이 은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질서와 덕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터툴리아누스도 몬타누스 운동과 연관되어 방언과 예언을 옹호했지만, 후대 교회는 이러한 은사들의 남용을 경계하며 점차 제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고넬료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이레나이우스는 2세기 후반에 활동한 초기 교부이자 리옹의 주교입니다. 그는 특히 영지주의라는 초기 기독교 이단에 맞서 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터툴리아누스는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활동한 초기 교부이자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는 로마 속주인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으로 라틴어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서방 기독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몬타누스 운동은 2세기 후반 소아시아에서 시작된 기독교 운동으로,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강조했던 종교적 부흥운동이었습니다.





3 장

/

초대교회의 부흥 요소

제 3 장 초대교회의 부흥 요소

훈련 목적

- *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 * 현대교회가 배워야하는 초대교회 비밀 파악하기
- * 예수께서 원하는 초대교회 스타일 파악하기
- * 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좋아했는지 이유 파악하기
- * 초대교회의 독특한 예배, 집회, 모임, 훈련 파악하기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1. 내적 요인: 영적 동력

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

1) 표적과 기사의 나타남

a. 치유와 이적의 사역

-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배경에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16절은 당시의 놀라운 광경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 이러한 이적들은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표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는 증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 사도행전 3장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의 치유는 초대교회 이적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 3:6)고 선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 영적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진 설교에서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행

3:16)고 설명했습니다.

- 이레나이우스는 「이단 반박」 2권 31장 2절에서 그의 시대에도 계속되는 이적들을 상세히 증언합니다: “그들은 귀신들을 참으로 확실하게 쫓아내므로, 귀신들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자주 신자가 되어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미리 아는 지식과 환상과 예언적 발언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치유하여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도 했고, 우리와 여러 해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은사들을 다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유스티누스 마르티르는 「제2호교론」 6장에서 기독교인들의 치유 사역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온 세계와 너희 도시에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

이레나이우스는 2세기 후반에 활동한 초기 교부이자 리옹의 주교입니다. 그는 특히 영지주의라는 초기 기독교 이단에 맞서 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유스티누스 마르티르(Justin Martyr)는 2세기 중엽에 활동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순교자입니다. '마르티르(Martyr)'는 순교자를 뜻하며, 그는 실제로 순교하여 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들 중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쳤고, 지금도 고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주술사들과 약물 사용자들이 고치지 못한 자들을 우리는 귀신들을 제압하고 쫓아냄으로써 치유합니다.”

b. 표적의 목적과 의미

- 초대교회의 표적과 기사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표적은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하나님의 인 증이었습니다.
- 히브리서 2장 3-4절은 이를 더욱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

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 오리게네스는 「켈수스 반박문」 1권 2장에 서 기적의 선교적 가치를 설명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인과 야만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설득력을 가진 것은 논리적 증명이나 그리스 철학의 구성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 터툴리아누스는 「호교론」 23장에서 이적의 변증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시각 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키시고,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마침내 말씀으로 귀신들을 사람들에게

오리게네스는 3세기 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성경 해석과 신학 체계화에 큰 기여를 했지만, 일부 독창적인 사상으로 인해 후대에 논쟁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터툴리아누스는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활동한 초기 교부이자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으로, 라틴어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서방 기독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서 쫓아내시고, 바다의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셨으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곧 태초의 로고스임을 보여줍니다.”

- 그러나 초대교회는 표적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24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선언합니다.

c. 영적 권위의 확립

- 초대교회의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바울은 “사

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초자연적 능력은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입증했습니다.

-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행 8:6-8). 심지어 마술사 시몬도 빌립의 능력 앞에 굴복했습니다.
- 사도행전 19장 11-12절은 바울을 통한 특별한 기적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

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러한 비상한 기적들은 에베소의 마술 문화에 대한 복음의 우월성을 증명했고, 많은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책을 불태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행 19:18-19).

[행 19:18]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행 19:19]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2) 담대한 복음 전파의 능력

a. 박해 속의 담대함

- 초대교회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나타난 초자연적인 담대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31절은 초대교회의 기도와 그 응답을 기록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

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
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 이 담대함은 인간적 용기가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기록합니다. 무학한 어부들이 최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했습니다.
- 스데반의 경우는 더욱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기록하고, 7장 55-56절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증언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며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 5장에서 이러한 담대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모든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죽기를 원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하니, 때가 맞지 않는 호의를 내게 베풀지 마십시오. 나를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놓아두십시오. 그들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이를 수 있습니다.”

b. 지혜와 능력의 말씀

-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는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동반했

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9-20절에서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 이 약속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10절은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기록합니다.
-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고 기록하고, 사도행전 18장 28절은 아볼로에 대해 "이

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고 증언합니다.

- 터툴리아누스는 「호교론」 4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변론 능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논증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선포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 종교의 기초이며, 우리 이름의 근거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예언들을 부인할 수 없고, 이방인들도 그 성취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c. 성령의 초자연적 인도

- 초대교회의 선교는 인간적 전략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 인도를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기록하고, 이어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20절에서

터툴리아누스는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활동한 초기 교부이자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으로, 라틴어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서방 기독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 아프리카 대륙까지 확장되는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방인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고 하여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 특히 사도행전 13장 2절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기록하여, 바울의 선교 여행이 성령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6-10절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나. 순교 정신과 헌신

1)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a. 순교를 영광으로 여김

-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가르칩니다.
- 빌립보서 1장 21절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은 초대교회 전체의 정신을 대변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내 정욕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니 이것이 훨씬 더 좋으니"(빌 1:23)라고 말합니다.
- 폴리카르푸스의 순교는 이러한 정신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폴리카르푸스의 순교록」 9장은 그의 마지막 고백을 기록함

폴리카르푸스는 2세기 초 소아시아 서머나(Smyrna) 교회의 감독이었던 초대 교부이자 순교자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직접적인 제자였으며, 초대 교회의 사도적 전통을 굳건히 지킨 인물로 존경받습니다.

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은 나에게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총독이 맹수들로 위협하자 그는 "어서 데려오라"고 대답했고, 화형으로 위협하자 "너는 한 시간 타다가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너는 악한 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의 불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 4-6장에서 순교에 대한 열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이니, 맹수들의 이빨로 갈려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맹수들을 부추기십시오. 그들이 나의 무덤이 되어, 내 몸의 어떤 부분도 남기지 않게 하십시오... 그 때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 터툴리아누스는 「스카폴라에게」 5장에서

이그나티우스는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활동했던 초대 교부이자 안디옥의 주교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전해지며, 초기 기독교의 신학적, 교회적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터툴리아누스는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활동한 초기 교부이자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으로, 라틴어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서방 기독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정복당하면서 정복합니다. 우리는 죽임을 당하면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묶이고 끌려갈 때 승리의 영광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의복이며, 우리의 개선 행진입니다.”

b. 순교자들의 증언과 영향력

-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죽음은 강력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평안과 용기, 원수를 위한 기도는 구경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많은 이들을 신앙으로 인도했습니다. 스테반의 순교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60절은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고 기록합니다.

- 이 장면을 목격한 사울(바울)은 훗날 회심하여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바울은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라고 회상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의 회심에 미친 영향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타스의 순교록」은 203년 카르타고에서 순교한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페르페투아는 젖먹이 아이를 둔 22세의 귀족 여성이었고, 펠리시타스는 임신 8개월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신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페르페투아는 옥중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 유세비우스는 「교회사」 5권에서 리옹과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타스의 순교록은 3세기 초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순교한 두 여성 순교자,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타스의 이야기를 담은 초기 기독교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순교 직전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 초대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유세비우스(Eusebius)는 4세기 초의 주교이자 신학자이며, 특히 교회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최초의 인물로, 그의 저작들은 초대 교회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입니다.

비엔나의 순교자들(177년)에 대해 상세히 기록합니다. 특히 노예 소녀 블란디나의 순교는 감동적입니다. “블란디나는 기둥에 매달려 맹수들의 먹이가 되었지만, 십자가의 형태로 매달린 그녀를 보며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c. 순교 신학의 발전

- 초대교회는 순교에 대한 깊은 신학적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순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합니다.
- 요한계시록 6장 9-11절은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보여줍니다. “다섯째 인

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 오리게네스는 「순교 권면」에서 순교를 “피의 세례”로 설명합니다. “순교로 받는 세례를 ‘피의 세례’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예수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 세례는 물의 세례보다 더 영광스럽다. 물의 세례 후에는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피의 세례 후에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 키프리아누스는 「순교 권면」에서 순교자의 관을 묘사합니다. “오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여러분은 고난의 잔을

오리게네스는 3세기 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 한 명입니다. 특히 성경 해석과 신학 체계화에 큰 기여를 했지만, 일부 독창적인 사상으로 인해 후대에 논쟁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키프리아누스(Cyprianus)는 3세기 중엽에 활동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이자 위대한 교부입니다. 그는 당시 로마 황제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와 교회 내 분열 위기 속에서 교회의 일치와 감독의 권위를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마셨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수 샘에서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빛이었고,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2)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

a. 박해가 가져온 역설적 성장

- 초대교회 역사의 가장 놀라운 역설 중 하나는 박해가 오히려 교회 성장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터툴리아누스의 유명한 말,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Sanguis martyrum semen ecclesiae)”(「호교론」 50장)은 이 역설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베어낼수록 우리의 수는 더욱 늘어난다.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씨앗이다. 여러분 중 많은 철학자들도 고

터툴리아누스는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활동한 초기 교부이자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는 북아프리카카르타고 출신으로, 라틴어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서방 기독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교론(Apologetics)은 기독교 신앙을 합리적으로 변호하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호교'라는 단어는 '종교를 보호한다'는 뜻이며, 그리스어 '아폴로기아(apologia)'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호교론은 비판과 의심에 대해 기독교의 믿음이 논리적이고 타당함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난을 멸시하라고 권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들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이 더 많은 제자를 만든다.”

- 사도행전 8장 1-4절은 이 원리의 실제적 예를 보여줍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는 의도하지 않게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 7장은 이 역설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에게 던져지지만,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벌을 받지만, 그들의 수는 날마다 증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치하신 그 자리를, 그들은 버릴 수 없습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는 2세기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초기 기독교 변증서입니다. 이 편지는 기독교 신앙과 삶을 변호하기 위해 디오그네투스라는 고위 로마 관리에게 보내진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유세비우스는 「교회사」 8권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 대박해(303-313년) 기간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순교자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소녀들과 노부인, 군인과 민간인, 모든 계급과 연령의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죽음으로 승리의 관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가장 극심한 박해 직후에 콘스탄티누스의 개종과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졌습니다.

b. 순교의 감화력

- 순교자들의 죽음은 목격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평안, 용기,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진실성을 입증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의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자신의 회심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제2호교론」 12장): "나도 플라톤의 가르침을 즐기며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죽음과 모

유세비우스는 4세기 초의 주교이자 신학자이며, 특히 교회사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최초의 인물로, 그의 저작들은 초대 교회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입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은 4세기 초 로마 제국의 역사와 기독교의 운명을 바꾼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원래 로마의 전통 신들을 숭배했지만, 312년 밀비우스 다리 전투를 앞두고 기독교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며 극적인 개종을 경험했다고 전해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는 161년부터 180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한 황제로, '오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는 철학자로서의 삶과 황제로서의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스토아 철학을 삶에 구현하려 노력한 인물로 특히 유명합니다.

든 무서운 것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악과 쾌락 속에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폴리카르푸스의 순교록」 15-16장은 그의 화형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불꽃이 뿔단배의 뿔처럼 둥근 모양을 만들어 그의 몸을 벽처럼 둘러쌌다. 그는 타는 것이 아니라 구워지는 빵이나 금은이 용광로에서 정련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몰약과 유향과 같은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다.” 이러한 초자연적 현상들은 구경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 플리니우스가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서신 10.96)는 로마 관리의 관점에서 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 새벽에 모여 그리스도를 신으로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도둑질, 강도질, 간음을 하지 않고, 신의를 지키며, 위탁물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서약한다.”

폴리카르푸스의 순교록은 2세기 중엽에 작성된 초기 기독교 문헌으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서머나의 감독 폴리카르푸스의 순교 과정과 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6세의 고령이었던 그는 로마 총독에게 신앙을 부인하라는 강요를 받았지만,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불에 타 순교했으나, 기록에 따르면 불이 그의 몸을 해치지 못하자 칼로 찔려 순교했습니다.

플리니우스(Pliny the Younger)는 2세기 초 로마 제국의 관료이자 작가로, 특히 트라야누스 황제와 주고받은 서신을 통해 초기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공식 정책을 엿볼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인물입니다.

트라야누스 황제는 98년부터 117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황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플리니우스와의 서신 교환으로 유명합니다.

비록 박해자의 입장에서 쓴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c. 순교 문학과 영웅 전설의 형성

- 초대교회는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승하여 신앙의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순교록(Acta Martyrum)들은 신자들에게 영감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38절은 구약의 신앙 영웅들의 고난을 열거한 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순교자들도 이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한다고 믿었습니다.
- 「스메르나 교회가 필로멜리움 교회에 보낸 편지」(폴리카르푸스의 순교록)는 순교자 기념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의 뼈를 금이나 보석보다 더 귀하게 여겨 합당한 곳에 안치했다. 가능한 한 우리는

스메르나 교회가 필로멜리움 교회에 보낸 편지는 2세기 중엽에 작성된 초기 기독교 문헌으로, 스메르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르푸스의 순교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순교록입니다. 이 편지는 폴리카르푸스가 86세의 고령에 신앙을 부인하라는 로마 총독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순교에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불에 타 죽임을 당했으나, 전설에 따르면 불길은 그의 몸을 해치지 못하자 칼로 찢어 순교했습니다. 이 문서는 초대교회에서 작성된 가장 오래된 순교 기록 중 하나이며, 사도 시대와 후대 교부 시대를 잇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로 평가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곳에 모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의 순교일, 곧 그의 생일을
기념할 것이다.”

다. 사랑의 실천과 증거

1) 아가페 사랑의 구현

a. 형제 사랑의 실천

- 초대교회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그들이 실천한 급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18절은 이 사랑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 이러한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45절과 4장 32-35절이 묘사하는 재산 공유는 사랑의 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터툴리아누스는 「호교론」 39장에서 이방인들의 반응을 전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 말하기를, ‘보라, 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니, 이는 그들 자신은 서로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보라, 그들이 서로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니, 이는 그들 자신은 서로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유스티누스 마르티르는 「제1호교론」 14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전에 음행을 즐겼으나 이제는 순결만을 품습니다. 우리는 마술을 사용했으나 이제는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

유스티누스 마르티르(Justin Martyr)는 2세기 중엽에 활동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순교자입니다. 그는 기독교야말로 참된 철학이라고 주장하며, 그리스 철학을 기독교 신앙과 조화시키려 노력한 최초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나눔께 헌신합니다. 우리는 돈과 재산을
무엇보다 사랑했으나,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모든 궁핍한 자와
나눔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죽였으
며, 다른 부족의 사람들과는 한 지붕 아래
살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후에 함
께 살며, 원수를 위해 기도합니다.”

- 아리스티데스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호교론」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서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과부를 멸시하지 않고, 고아를 구원하며,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낯선 이를 보면 자기 지붕 아래로 데려가 친형제처럼 기뻐합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영을 따라 형제라 부릅니다.”

b. 원수 사랑의 혁명적 실천

- 초대교회의 가장 혁명적인 특징은 원수

아리스티데스는 2세기 중엽에 활동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철학자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게 기독교를 변호하는 글을 썼으며, 이는 초기 기독교 변증서 중 가장 초기에 속하는 중요한 문헌입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117년부터 138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한 황제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경계를 공고히 하고 문화 발전을 장려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가 내린 기독교인 처벌에 대한 지침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45절의 예수님 가르침,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는 초대교회의 생활 원칙이 되었습니다.

- 스테반의 마지막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 7:60)는 이 원칙의 실천이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2-13절에서 "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라고 증언합니다.
- 「디다케」 1장 3절은 이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금식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방인들도 그리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

라. 그리하면 원수가 없으리라.”

- 락탄티우스는 「거룩한 교훈」에서 원수 사랑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해를 입는 것보다 해를 끼치는 것이 더 나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내로써 받은 상처를 치유하며, 복수가 아닌 용서로써 응답합니다.”

2) 이웃 사랑의 실천적 모델

a. 전염병 시대의 희생적 봉사

- 초대교회의 사랑은 위기의 시대에 더욱 빛났습니다. 특히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놀라웠습니다. 안토니누스 전염병(165-180년)과 키프리아누스 전염병(249-262년) 기간 동안, 많은 이교도들이 가족마저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서 병자들을 돌보았습

안토니누스 전염병(Antonine Plague)은 서기 165년부터 180년경까지 로마 제국을 휩쓸었던 대규모 전염병입니다. 로마 오현제 시대의 끝자락에 발생하여 제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당시 의사였던 갈레노스가 이 병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갈레노스의 전염병(Plague of Galen)’이라고도 불립니다.

키프리아누스 전염병(Plague of Cyprian)은 서기 250년경부터 270년까지 로마 제국을 덮친 대규모 전염병입니다. 이 병은 3세기의 위기(Crisis of the Third Century)라고 불리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혼란기에 발생하여 제국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병은 당시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성 키프리아누스(Saint Cyprian)가 자신의 저술에 병의 증상과 사회적 영향을 상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니다.

- 디오니시우스는 260년경 부활절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형제들 대부분은 극진한 사랑과 형제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만을 생각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병자들을 방문했고, 기꺼이 그들을 섬겼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그들과 함께 이생을 떠났습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병을 옮겨 받아, 그들의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고, 이웃의 아픔을 자신에게 끌어당겼습니다."
- 키프리아누스는 「죽음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카르타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오직 우리 형제들에게만 향한다면, 우리가 세리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하여 모든 사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는 260년경 부활절 서신에서 당시 로마 제국을 휩쓸던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서신은 전염병이 가져온 끔찍한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행동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키프리아누스(Cyprian)는 「죽음에 관하여」(De Mortalitate)라는 제목의 저술을 남겼습니다. 이 저술은 서기 252년, 로마 제국을 휩쓸던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 절정에 달했을 때 쓰였습니다. 이 작품은 전염병이라는 끔찍한 재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 율리아누스 황제(361-363)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그들의 자선 활동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르사키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불경건한 갈릴리인들(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가난한 자들뿐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 먹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썼습니다.

b.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제 사역

- 초대교회는 과부, 고아,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신앙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라는 말씀은 실천 강령이었습니다.
- 「사도 헌장」은 교회 수입의 사용에 대해

율리아누스 황제(Flavius Claudius Julianus, 331~363)는 로마 제국의 마지막 비(非)기독교인 황제이자, 철학자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콘스탄티누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로, 361년부터 363년까지 불과 2년간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를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부르면서 역사적으로 논쟁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헌장(Apostolic Constitutions)
사도 헌장(Apostolic Constitutions)은 4세기 후반 시리아 지역에서 익명의 저자가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대교회 문헌입니다. 총 8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 기독교 공동체의 윤리, 전례, 교리, 성직자 규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헌은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도 시대 이후의 다양한 교회 문헌들을 편집하고 보완한 것입니다. 특히 기존에 존재했던

이렇게 규정합니다: "고아와 과부, 궁핍으로 고통받는 자, 질병으로 무력한 자들을 돌보라. 나그네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를 방문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도우라."

- 헤르마스의 「목자」는 참된 금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금식하는 날에는 빵과 물 외에는 아무것도 맛보지 말라. 그리고 네가 먹으려 했던 음식의 값을 계산하여, 그것을 과부나 고아나 궁핍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하여 네 금식으로 인해 네 영혼이 겸손해지고, 받는 자가 배부르게 되어 너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게 하라."

「디다케」(Didache)나 「사도 전승」(Apostolic Tradition) 같은 문헌의 내용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학계에서는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이라기 보다는 4세기 후반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헤르마스의 「목자」(The Shepherd of Hermas)는 2세기 초중반에 쓰인 초기 기독교 문헌입니다. 사도 시대와 초대 교부 시대의 중간에 위치하며, 신약 성경 외경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한 때는 여러 교회에서 정경(성경)으로 간주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정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외적 요인: 시대적 조건

가. 로마 제국의 통일된 체제

1) 언어의 통일 (코이네 그리스어)

a. 공용어의 이점

-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에 가장 적합한 시대적 조건이 마련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언어의 통일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기원전 334-323년) 이후 코이네 그리스어는 지중해 세계 전체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는 복음 전파에 결정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 그리스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언어의 보편성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은 바울이 로마 천부장에게 그리스어로 말하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이는 로마 군인들도 그리스어를 이해했음을 보여줍니다.

코이네 그리스어(Koine Greek)는 고대 그리스어의 한 형태로, 기원전 300년경부터 서기 300년경까지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시대에 걸쳐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였습니다. '코이네'는 그리스어로 '공통' 또는 '공용'을 뜻합니다.

[행 21:37] 바울을 데리고 병영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헬라말을 아느냐

- 오리게네스는 「켈수스 반박문」 1권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모든 민족의 언어를 배울 수 없었다면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리스어가 이미 널리 퍼져 있었기에, 그들은 이 언어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 신약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도 이러한 언어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심지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을 위한 마태복음도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고,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도 라틴어가 아닌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b. 70인역 성경의 역할

-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Septuaginta, LXX)의 존재는 복음 전파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리게네스는 3세기에 활동한 초대 교부이자 신학자입니다. 그의 주요 저서 중 하나가 「켈수스 반박문」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를 비판한 고대 로마의 이교도 철학자 켈수스의 저서 「참된 말씀」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70인역(Septuagint)은 기원전 3세기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고대 그리스어인 코이네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70인역'이라는 이름은 라틴어 '셉투아진타(Septuaginta)'에서 유래했으며, 로마 숫자로는 LXX로 표기합니다. 이는 70명 또는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번역에 참여했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명으로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 초대교회는 70인역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신약성경의 구약 인용 대부분이 70인역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7장 14절의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번역은 70인역의 “파르테노스(처녀)”를 따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를 인용하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증명합니다.
- 유스티누스 마르티르는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70인역을 광범위하게 인용하며 유대인 트리포와 논쟁합니다. 그는 70인역이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다.

유스티누스 마르티르(Justin Martyr)는 2세기 중엽에 활동한 초기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의 중요한 저서 중 하나가 「트리포와의 대화」(Dialogue with Trypho)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를 변호하고 유대교와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쓰인 작품입니다.

c. 문화적 공통 기반의 형성

- 헬레니즘 문화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공통의 문화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행 17:18)도 이러한 공통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스트로마테이스」에서 그리스 철학을 “이방인을 위한 구약”이라고 부르며, 철학이 복음을 위한 예비 교육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철학은 그리스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였다. 마치 율법이 히브리인들을 인도한 것처럼.”

헬레니즘 문화(Hellenistic culture)는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사망한 시점부터 로마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멸망시킨 기원전 30년까지, 약 300년 동안 지중해 동부와 서아시아 지역을 풍미했던 문화를 말합니다. 헬레니즘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와 비슷한' 또는 '그리스화된'이라는 뜻으로, 그리스 문화가 동방 문화와 융합되어 새롭게 탄생한 범세계적인 문화를 의미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는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활동한 초기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작 중 하나가 「스트로마테이스」(Stromateis)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그리스어로 '패치워크' 또는 '짜깁기'를 뜻하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2) 도로망과 교통의 발달

a. 로마의 도로 체계

-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이 보여 주듯, 로마는 제국 전역에 총 8만 킬로미

터가 넘는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이 도로들은 원래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복음 전파의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 도로망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는 비아 에그나티아(Via Egnatia)를 통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했고(행 16:11-17:1), 비아 아피아(Via Appia)를 통해 로마에 입성했습니다(행 28:15). 사도행전 28장 15절은 "그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더라"고 기록하는데, 이들은 로마로 가는 아피아 가도상의 정류소들이었습니다.
- 터툴리아누스는 「유대인들에 대항하여」에서 복음의 신속한 확산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곳에 믿어지고 있다.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며, 그는 모든 곳에서 통치하시고 경배받으신다. 그

터툴리아누스(Tertullian)는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활동한 카르타고의 초기 기독교 신학자이자 교부입니다. 그의 저서 「유대인들에 대항하여」(Adversus Iudaeos)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 변증한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책은 로마에 살던 유대인 회심자와 터툴리아누스 간의 가상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터툴리아누스는 이 대화를 통해 기독교가 유대교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논증하려 했습니다.

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지신다.”

- 로마 도로의 안전성도 중요했습니다. 로마는 도로를 따라 정기적으로 군대를 순찰시켜 도적들로부터 여행자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는 선교사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b. 해상 교통의 발달

-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Mare Nostrum)”로 불릴 만큼 로마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기원전 67년에 해적을 소탕한 이후 지중해 항해는 안전해졌습니다.
- 바울의 선교 여행은 해상 교통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된 그의 여행은 수많은 항해를 포함합니다. 비록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난파 사건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해상 여행은

육로보다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 누가는 의사답게 바울의 항해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3-16절, 21장 1-3절 등은 당시 항해 경로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지중해 항로가 잘 확립되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c. 숙박 시설과 통신 체계

- 로마는 도로를 따라 정기적인 간격으로 숙박 시설(mansiones)과 역참(mutationes)을 설치했습니다. 비록 이것들이 주로 공무 여행자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일반 여행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여관들이 발달했습니다.
- 초대교회는 또한 독자적인 환대 네트워크를 발전시켰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이 아는 수많은 신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들은 여행하는 전도자들을 접대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요한삼서 5-8절

은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우리가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가르칩니다.

- 「디다케」 11-12장은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는 규칙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라. 그러나 그를 시험하여 분별하라... 사도는 떠날 때 다음 숙소에 도달할 만큼의 빵 외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3) 법과 질서의 안정성

a. 로마법의 보호

- 초기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져 로마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유대교는

“허가된 종교(religio licita)”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16절에서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을 때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고 말하며 종교적 논쟁에 개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은 그의 선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39절에서 빌립보 관리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고 두려워했고, 22장 25-29절에서는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려다가 그가 로마 시민임을 알고 중단했습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 시민의 권리로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었습니다(행 25:11).
- 플리니우스가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허가된 종교(religio licita)'는 고대 로마 제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았던 종교를 의미합니다. '릴리기오(religio)'는 라틴어로 종교를, '리키타(licita)'는 '허가된' 또는 '합법적인'을 뜻합니다.

편지는 2세기 초까지도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다루는 데 일관된 정책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트라야누스는 “그들을 찾아내지는 말되, 고발되어 유죄가 입증되면 처벌하라”고 답했는데, 이는 적극적인 박해보다는 소극적인 대응이었습니다.

b. 치안의 유지

- 파クス 로마나(Pax Romana, 로마의 평화) 시대(기원전 27년-기원후 180년)는 지중해 세계에 전례 없는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규모 전쟁이 없었고, 치안이 유지되어 여행과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말할 때,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와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켈수스 반박문」 2.30에서 이렇게 설명합

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로마 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만약 여전히 많은 왕국들이 분열되어 있었다면, 예수의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가르치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 종교적 공백과 영적 갈증

1) 전통 종교의 쇠퇴

a. 그리스-로마 신화의 한계

- 1세기에 이르러 전통적인 그리스-로마 신화는 심각한 신뢰성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지식인들은 신화를 비판했고, 일반 대중도 더 이상 신화를 문자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키케로는 「신들의 본성에 대하여」에서 전통 종교의 모순과 비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발견한 것(행 17:23)은 당시 종교적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혹시 자신들이 모르는 진정한 신이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 공백을 이용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고 선포했습니다.

- 루키아노스나 유베날리스 같은 풍자 작가들은 신들을 조롱했고, 이는 전통 종교의 권위 실추를 보여줍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시스와 오시리스」에서 전통 신화를 알레고리로 해석하려 했는데, 이는 문자적 믿음이 불가능해졌음을 시사합니다.

b. 형식화된 제의

- 로마의 국가 종교는 점점 형식적인 의례로 전락했습니다. 제사는 국가적 의무로 수행되었지만, 개인의 영적 필요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종교 개혁도 외

루키아노스(Lucian of Samosata, c. 125 ~ 180)는 로마 제국 시대에 활동한 시리아 출신의 그리스어 작가이자 풍자 작가입니다. 그는 독특한 유머와 기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당시의 종교, 철학, 사회적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그리스 문학의 마지막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유베날리스(Juvenalis, c. 55 ~ 127)는 로마 제국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풍자 작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라틴어로 시를 썼으며, 당대 로마 사회의 타락과 부패를 격렬하고 신랄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의 풍자 스타일은 '유베날리스적 풍자(Juvenalian satire)'라고 불리며, 이후 서양 문학의 풍자 장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적 의례의 부활에 그쳤을 뿐, 내적 신앙을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 미누키우스 펠릭스는 「옥타비우스」에서 이교 제의의 공허함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예배는 관습과 전통의 문제일 뿐이다.”
- 초대교회는 이러한 형식주의와 대조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제시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24절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는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미누키우스 펠릭스 (Minucius Felix)는 2세기 후반 또는 3세기 초에 활동한 로마의 법률가이자 초기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의 유일한 작품인 「옥타비우스」(Octavius)는 초기 기독교와 로마 전통 종교 간의 사상적 충돌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헌입니다.

2) 철학의 한계와 대중의 소외

a. 엘리트 철학의 한계

-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플라톤주의 등 당시의 철학들은 지식인들에게는 어느 정도 만족을 주었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들 철학은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 확실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스토아 철학의 정수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한계도 드러냅니다. 그는 덕스러운 삶을 강조했지만, 궁극적인 희망이나 구원의 확신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0-21절에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한 후, 고린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고전 2:2) 했다고 말합니다.
- 유스티누스 마르티르는 철학자로서 진리를

스토아 철학(Stoicism)은 기원전 3세기경 키프 로스의 제논에 의해 창시된 고대 그리스-로마의 주요 철학 학파입니다. 이 철학은 인간의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자연의 섭리에 따라 덕스럽고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에피쿠로스 철학(Epicureanism)은 기원전 4세기 아테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창시한 학파입니다. 이 철학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를 쾌락의 추구로 보았지만, 이는 단순히 감각적 즐거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플라톤주의(Platonism)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Plato, 기원전 428/427년경 ~ 348/347년경)의 사상과 그를 계승한 학파들의 철학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플라톤주의는 서양 철학과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기독교 신학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추구하다가 기독교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철학적 순례를 설명하며, “나는 기독교가 유일한 확실하고 유익한 철학임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b. 구원에 대한 갈망

- 1세기 지중해 세계에는 구원과 내세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는 미스터리 종교들의 유행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엘레우시스 신비, 미트라교, 이시스 숭배, 디오니소스 제의 등은 모두 어떤 형태의 구원과 불멸을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이들 미스터리 종교는 비밀스럽고 배타적이었으며, 대부분 신화와 의례에 의존했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구원을 제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을했습니다.

유스티누스 마르티르(Justin Martyr)는 2세기 중엽에 활동한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증가 중 한 명으로, 이교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논리적으로 변호하고 합리적인 종교임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르티르(Martyr)'는 '순교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가 순교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트리포와의 대화'는 2세기 중엽에 활동한 초기 기독교 변증가 유스티누스 마르티르가 쓴 중요한 문헌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엘레우시스 신비(Eleusinian Mysteries)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하고 신성하게 여겨졌던 비밀 종교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농업의 여신 데메테르와 그녀의 딸 페르세포네를 기리기 위해 매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라는 선언은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기초를 강조합니다.

- 아르노비우스는 「이교도들을 대적하여」에서 기독교가 제공하는 확실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희망이나 불확실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약속과 증명된 부활의 사실에 기초하여 영생을 믿는다.”

년 아테네 근교의 엘레우시스에서 열렸으며, 그 기원은 기원전 15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트라교(Mithraism)는 고대 로마 제국에서 숭배되었던 비밀 종교입니다. 기원전 1세기경부터 4세기경까지 주로 군인, 상인, 관료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이 종교의 핵심은 이란의 신인 **미트라(Mithras)**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시스 숭배(isis cult)는 고대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를 숭배하는 종교로,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 제국 시대에 지중해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시스는 원래 이집트 신화에서 오시리스의 아내이자 호루스의 어머니로서, 풍요, 마법, 치유를 상징하는 여신이었지만, 다른 문화권과 융합되면서 다양한 속성을 가진 보편적인 여신으로 변모했습니다.

디오니소스 제의(Dionysian Mysteries)는 고대 그리스에서 술,

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역할

1) 회당을 통한 선교 거점

a. 회당 네트워크

- 예수님 시대에 이미 로마 제국 전역에는 수백 개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필로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에만 수십 개의 회당이 있었고, 사도행전 6장 9절은 예루살

렘에도 여러 회당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이 회당들은 초기 기독교 선교의 핵심 거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회당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라고 기록하고, 13장 14절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고 기록합니다.
- 사도행전 17장 1-2절은 바울의 일관된 전략을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선호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 회당에서는 방문자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항할경, 풍요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의식입니다. 이 제의는 공식적인 국가 종교와 달리, 개인의 감정적, 영적 경험을 중시하는 신비 종교의 특징을 지녔습니다.

아르노비우스(Arnobius)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활동한 초기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의 유일한 저서인 「이교도들을 대적하여」(Adversus Nationes)는 기독교를 향한 이교도들의 비난에 대해 반박하고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을 변호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복음 전파의 좋은 기회였습니다.

b. 안식일 예배의 기회

- 안식일 회당 예배는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기에 이상적인 기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44절은 바울의 설교 후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내가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 회당 예배는 성경 낭독과 해석을 포함했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기록합니다.

2) 하나님 경외자들의 존재

a. 개종 준비자들

-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God-fearers, 헬라어로 phoboumenoi ton theon)"은 유대교에 호감을 가졌지만 완전히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일신 신앙과 유대교의 윤리적 가르침에 매력을 느꼈지만, 할례와 같은 의례적 요구 때문에 완전한 개종을 주저했습니다.
- 고넬료는 하나님 경외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 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 사도행전은 여러 곳에서 이들을 언급합니다. 1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고 부르고, 13장 43절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라고 기록합니다.
-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이상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일신 신앙과 구약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교의 의례적 짐은 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할례 없이도 구원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b. 문화적 가교 역할

- 하나님 경외자들은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출석하면서도 이방

인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루디아는 이러한 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유럽에서 최초의 개종자가 되었고, 그녀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 에베소의 야손(행 17:5-9), 고린도의 디도 유스도(행 18:7) 등도 하나님 경외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복음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행 17:5]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행 17:6] 만나지 못하매 야손과 형제 몇 사람을 끌고 음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행 17:7]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 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라 하는 이름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행 17:8]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행 17:9]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증을 받고 놓아주니라

[행 18:7]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4 장

/

초대교회의 예배 방식

제 4 장 초대교회의 예배 방식

훈련 목적

- *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 * 현대교회가 배워야하는 초대교회 비밀 파악하기
- * 예수께서 원하는 초대교회 스타일 파악하기
- * 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좋아했는지 이유 파악하기
- * 초대교회의 독특한 예배, 집회, 모임, 훈련 파악하기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1. 가정 교회 중심의 예배

가. 성전 예배에서 가정 예배로의 전환

1) 친밀한 교제와 예배의 결합

a. 가정 교회의 시작과 발전

- 초대교회 예배의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웅장한 성전에서 소박한 가정으로의 이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 전환기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기에는 성전과 가정에서 동시에 모였지만, 점차 가정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예배 개념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스테반은 사도행전 7장 48-49절에서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선언하여, 성전 중심 예배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 가정 교회의 구체적인 예들이 신약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로마서 16장 5절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말하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부부는 고린도(고전 16:19)와 에베소(행 18:26)에서도 가정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기록하며, 빌레몬서 2절은 “밋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빌레몬의 집도 교회였음을 증언합니다.
- 유스티누스 마르티르는 로마 총독 루스티쿠스의 심문을 받을 때(165년경)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장소에 대해 이렇게 답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Priscilla and Aquila)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초기 기독교 선교사 부부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절친한 친구로,

[고전 16:19]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느니라

[행 18:26]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로마 총독 '퀸투스 유니우스 루스티쿠스'(Quintus Junius Rusticus)는 서기 165년경 초기 기독교 변증가인 유스티누스 마르티르를 재판하고 처형한 로마총독입니다.

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원하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모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모두 같은 장소에 모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온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시고, 모든 곳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경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b. 가정 교회의 예들과 특징

- 초대교회 시대의 가정 교회들은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고 기록합니다. 이 집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기도 센터였고, 전승에 따르면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다락방도 이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 고린도의 가이오의 집은 특별히 큰 가정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라고 기록하는데, "온 교회"라는 표현은 그의 집이 고린도 전체 교회가 모일 수 있을 만큼 컸음을 시사합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당시 부유한 로마인의 집(domus)은 아트리움과 페리스타일을 포함하여 수십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 가정 교회의 규모는 다양했지만, 일반적으로 20-40명 정도가 모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로마 시대 일반 가정의 크기와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의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라는 표현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모임은 친밀한 교제와 상호 돌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 터툴리아누스는 「호교론」 39장에서 가정 교회 모임의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의 가이오(Gaius of Corinth)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교인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에 따르면, 그는 바울의 선교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자신의 집을 여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터툴리아누스(Tertullian)는 3세기 초에 활동한 초기 기독교 교부이자 변증가로, 그의 대표작 중 하나가 「호교론」(Apologeticus)입니다. 이 책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겪는 부당한 박해를 비판하고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우리의 만찬의 이름 자체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리스어로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고 불립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사랑의 이름으로 지출하는 것은 이익입니다. 우리는 이 만찬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습니다... 우리는 식탁에서도 기도를 먼저 합니다. 적당히 먹고, 갈증을 해소할 만큼만 마십니다. 밤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만족합니다.”

c. 친밀한 교제의 장점과 영향

- 가정 교회는 단순한 예배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코이노니아(교제)가 실현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사도 행전 2장 42절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는 묘사는 가정 교회에서 가장 잘 실현되었습니다.

- 소규모 가정 교회의 친밀성은 여러 장점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은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라고 기록하여, 모든 사람이 은사를 활용하여 예배에 기여했음을 보여줍니다.
- 둘째, 깊은 영적 돌봄이 가능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명령은 서로를 잘 아는 소규모 공동체에서 더 효과적으로 실천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권면도 친밀한 가정 교회 환경에서 가능했습니다.
- 셋째, 박해 시대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했습

니다. 대규모 공개 모임은 쉽게 탄압의 대상이 되었지만, 가정 교회는 은밀히 모일 수 있었고, 필요시 장소를 옮기기도 쉬웠습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 5장은 “그리스도인들은 도시나 언어나 관습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가정 교회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 이그나티우스는 「서머나 교회에 보낸 서신」 8장에서 가정 교회와 감독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감독이 나타나는 곳에 회중이 있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보편 교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독 없이는 세례를 베풀거나 애찬을 거행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가정 교회들이 독립적이면서도 더 큰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2) 떡을 떼는 모임의 의미

a. 애찬과 성찬의 결합

- 초대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예배 요소 중 하나는 "떡을 떼는" 모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은 이것이 일상적인 실천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에 이 "떡을 떼는" 행위는 완전한 식사(애찬, agape)와 성찬식의 결합이었습니다.
- 고린도전서 11장 20-22절은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는 애찬이 실제 식사였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음식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어야 했음을 보

여줍니다.

- 유다서 12절은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라고 언급하여, 애찬이 교회의 정규적인 행사였음을 확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도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거워하는 것이니"라고 하여 같은 관습을 언급합니다.
- 플리니우스가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서신 10.96)는 외부인의 관점에서 본 초대교회의 모임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 새벽에 모여 그리스도를 신으로 찬양하는 노래를 교대로 부르고... 다시 모여 음식을 함께 먹는데, 그것은 평범하고 무해한 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평범하고 무해한"이라는 표현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을 한다는 소문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 「디다케」 9-10장은 초기 성찬 기도문을

플리니우스가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서신 10.96)는 고대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 박해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당시 비티니아(오늘날의 터키 북부) 지역의 총독이었던 소 플리니우스는 기원후 112년경 이 편지를 통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황제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잔에 대하여 이렇게 감사하라: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종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를 당신의 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께 있기를!'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과 지식을 감사합니다.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께 있기를!'"

b. 성찬의 신학적 의미와 실천

- 초대교회에게 성찬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17절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선언합니다.

-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20장에서 성찬을 "불멸의 약,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해독제"라고 부릅니다. 그는 「서머나 교회에 보낸 서신」 7장에서 도케티즘을 반박하며 "그들은 성찬과 기도에서 떠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곧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고 아버지께서 자비로 살리신 그 육체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 유스티누스 마르티르는 「제1호교론」 66장에서 성찬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음식을 우리는 '유카리스트'(감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진실로 믿고, 죄 사함과 중생을 위한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대로 사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음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되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 살과 피를 가지셨듯이, 그분의 말씀으로 축사된 음식도 육신이 되신 예수의 살과 피라고 배웠습니다.”

-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 21장은 성찬식의 엄숙함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 주의 성찬을 먹지 않도록, 또 짐나 다른 동물이 먹지 않도록, 또 성찬이 떨어지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자들이 먹어야 하는 것이지 멸시되어서는 안 된다.”

c. 공동체성의 강화

- 성찬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사랑을 표현하고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의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

히 폴 리 투 스 (Hippolytus of Rome, c. 170-235)는 3세기 초 로마에서 활동한 초기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그의 저작으로 알려진 「사도 전승」(Apostolic Tradition) 초기 교회의 전례, 규율, 직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는 경고에서 “주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포함하는 의미였습니다.

- 「디다케」 9장 4절은 이러한 일치의 비전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이 떡이 산 위에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되었고, 주의 교회도 땅 끝에서 모여 주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영광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주께 있기를!”
- 키프리아누스는 「교회의 일치에 관하여」에서 성찬과 교회 일치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주님의 희생 제사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선포합니다. 많은 낱알이 모여 반죽되어 한 덩어리가 되어 한 떡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떡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임을 알아야 합니다.”
- 성찬식 전의 평화의 입맞춤(holy kiss)도 공동체성을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데살로니가전

키프리아누스(Cyprian)는 3세기 중엽에 활동한 카르타고의 주교이자 순교자입니다. 그의 중요한 저서인 「교회의 일치에 관하여」(De Unitate Ecclesiae)는 교회의 분열을 경고하고, 교회의 통일성과 주교의 권위를 강조한 작품입니다.

서 5장 26절 등에서 언급되는 이 관습은 성찬 전에 화해와 일치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유스티누스 마르티르는 「제1호교론」 65장에서 “기도를 마친 후 우리는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한다”고 기록합니다.

나. 주일 예배의 확립

1)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변화

a. 부활의 날 기념

- 초대교회가 안식일(토요일) 대신 주일(일요일)을 예배일로 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서들은 일치하여 예수님이 “안식일 이튿날” 곧 “그 주간의 첫날”에 부활하셨다고 증언합니다(마 28:1, 막 16:2, 눅 24:1, 요 20:1).
- 사도행전 20장 7절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

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기록하여, 사도 시대부터 주일 모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라고 하여, 주일이 정기적인 모임의 날이었음을 시사합니다.

- 계시록 1장 10절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기록하는데, 여기서 “주의 날(헤 퀴리아케 헤메라)”은 주일을 가리키는 기술적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황제의 날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날을 의미했습니다.
- 이그나티우스는 「마그네시아 교회에 보낸 서신」 9장에서 이 변화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옛 관습대로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의 날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 날에 우리의 생명이 그분과 그분의 죽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우

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께 배우기 위함입니다.”

- 「바나바 서신」 15장 9절은 더 신학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덟째 날을 기쁨으로 지킵니다. 이 날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으신 날이며, 나타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입니다.” 여기서 “여덟째 날”은 새 창조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b. 주일의 신학적 의미

- 주일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것은 새 창조의 첫날을 상징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첫날에 시작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 유스티누스 마르티르는 「제1호교론」 67

「바나바 서신」(Epistle of Barnabas)은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익명의 저자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 기독교 문헌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가 썼다는 전승이 있었지만, 현대 학자들은 저자를 사도 바나바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는 초기 교부들에게 널리 읽히고 인용되었으며, 한 때는 정경으로 인정받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장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일요일이라 불리는 날에 도시나 시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모이는 이유는, 이날이 하나님께서 어둠과 물질을 변화시켜 세상을 만드신 첫날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 둘째, 주일은 종말론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4장이 말하는 "안식"의 완성을 미리 맛보는 날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후에 이를 "영원한 여덟째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터툴리아누스는 「기도론」 23장에서 주일 예배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주일에는 금식이나 무릎 꿇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같은 특권을 우리는 부활절 후 오순절까지 누립니다. 이는 부활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지 않고 서서 기도하는 것은 부활을 상징했습니다.

터툴리아누스(Tertullian)는 3세기 초에 활동한 초기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그의 저서 「기도론」(De Oratione)은 초대 교회의 기도 생활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c. 주일 예배의 정착

- 2세기 중엽까지 주일 예배는 보편적인 관습이 되었습니다. 플리니우스의 편지(112년경)는 "정해진 날(stato die)"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고 보고하는데, 이는 주일을 가리킵니다. 그는 그들이 "새벽 전에(ante lucem)" 모인다고 하는데, 이는 노동자들이 일하기 전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한 배려였습니다.
- 「디다케」 14장 1절은 "주님의 날에는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감사를 드리되, 먼저 여러분의 잘못을 고백하여 여러분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십시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주님의 날"은 분명히 주일을 가리킵니다.
- 콘스탄티누스가 321년에 일요일을 공식 휴일로 선포하기 훨씬 전부터, 주일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

플리니우스가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서신 10.96)에는 기독교인들의 종교 의식에 대한 중요한 언급이 담겨 있습니다. 편지에서 플리니우스는 기독교인들이 "정해진 날(stato die)"에 모인다고 보고합니다.

니다. 초대교회는 이 날을 "작은 부활절"로 여겼고, 매주 부활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2) 주일 예배의 정착

a. 정기적 모임의 중요성

- 초대교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로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이는 당시에 모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사도 헌장」 2.59는 더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교회 모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거룩한 양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찢고

사도 헌장은 4세기 후반 시리아 지역에서 익명의 저자가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 기독교 문헌입니다. 총 8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 기독교 공동체의 윤리, 전례, 교리, 성직자 규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헌은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도 시대 이후의 다양한 교회 문헌들을 편집하고 보완한 것입니다. 특히 기존에 존재했던 「디다케」나 「사도 전승」 같은 문헌의 내용을 차용했습니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4세기 후반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흘어뜨리는 자입니다.” 이는 개인 신앙과 공동체 예배의 불가분성을 강조합니다.

- 주일 모임의 정기성은 리듬 있는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는 신자들에게 영적 쇄신의 기회를 제공했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박해 시대에 위험을 무릅쓰고 모이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 아비티나의 순교자들(304년)의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 때 체포된 49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금지된 모임을 가졌느냐는 심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 없이 살 수 없습니다(Sine dominico non possumus)”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일 예배는 생명보다 소중했습니다.

b. 주일 예배의 보편화

- 2세기에 이르러 주일 예배는 전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인 관습이 되었습

아비티나의 순교자들(Martyrs of Abitina)은 서기 304년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 당시 순교한 북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의 순교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용기와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다. 유스티누스 마르티르의 「제1호교론」 67장은 당시 로마 교회의 주일 예배를 상세히 묘사합니다:

- "일요일이라 불리는 날에, 도시나 시골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사도들의 회고록이나 선지자들의 글이 낭독됩니다. 낭독자가 끝내면, 인도자가 말로 교훈과 권면을 하여 이 선한 일들을 본받도록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모두 함께 일어서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가 끝나면, 앞서 말한 대로 떡과 포도주와 물이 준비되고, 인도자는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껏 기도와 감사를 드리며, 회중은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감사 드린 것들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고,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집사들을 통해 보냅니다."
- 이 묘사는 놀랍도록 체계적인 예배 순서를 보여줍니다: 말씀 봉독 → 설교 → 공동 기

유스티누스 마르티르 (Justin Martyr)의 **「제1호교론, 또는 변증서」(First Apology)**는 2세기 중반에 쓰인 초기 기독교 문헌으로, 로마 황제 안토니누스 피우스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로마 원로원에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 쓴 공개 서한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이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변증학의 중요한 초기 작품입니다.

도 → 성찬 → 나눔.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따르는 예배 구조의 원형입니다.

- 터툴리아누스는 「호교론」 39장에서 북아프리카 교회의 예배를 묘사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고 끝냅니다. 우리는 거룩한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권면하고, 책망하고, 거룩한 징계를 행합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양육하고, 소망을 일으키며, 확신을 굳게 하고, 계명을 심화시킵니다.”

2. 예배의 구성 요소

가. 말씀 중심의 예배

1) 구약성경 낭독과 해석

a. 회당 예배 전통의 계승

- 초대교회의 말씀 중심 예배는 유대 회당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21절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해석하신 것을 기록하는데, 이는 회당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 초대교회는 이러한 성경 낭독과 해석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권면하는데, 여기서 "읽는 것"은 공적인 성경 낭독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도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라고 하여, 공적 낭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 느헤미야 8장 1-8절에 기록된 에스라의 울

법 낭독과 해석은 초대교회 말씀 사역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만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 유스티누스 마르티르는 「제1호교론」 67장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성경을 낭독했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을 성경 낭독에 할애했음을 시사합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적 낭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b.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

- 초대교회의 가장 혁신적인 특징은 모든 구약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해석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 이러한 그리스도론적 해석은 초대교회 설교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은 빌립이 이사야 53장을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은 바울의 설교 방법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 오리게네스는 구약성경 해석의 원리를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원리론」 4권에서 성경의 삼중적 의미 - 문자적, 도덕적, 영적 의미 - 를 제시하면서도, 모든 해석의 중심은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찾아야 한다. 율법과 선지서들은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모형이었다."
- 이레나이우스는 「이단 반박」 4권에서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주셨다. 구약의 모든 의식과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c. 렉시오 콘티누아(연속 낭독)의 실천

- 초대교회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낭독하는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른바 '렉시오 콘티누아'(lectio continua) 방식으로, 성

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낭독하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들도록 보장했습니다.

- 크리스소스토무스의 설교집은 이러한 연속 강해의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그는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 서신들을 절별로 강해했습니다. 그의 마태복음 강해설교는 90편, 요한복음은 88편에 이릅니다.
- 터툴리아누스는 「이교도들에 대항하여」에서 이러한 체계적 성경 읽기를 옹호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지 않고 전체를 읽는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이해하고, 부분적 이해의 오류를 피할 수 있다."

크리스소스토무스의 설교집은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초대교회 문헌입니다. '크리스소토무스(Chrysostom)'는 '황금의 입(Golden-mouthed)'이라는 뜻의 별명으로, 그의 뛰어난 설교 능력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본명은 요한(John)이었고, 그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활동한 안티오키아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습니다.

터툴리아누스(Tertullian)는 3세기 초에 활동한 초기 기독교 교부이자 변증가로, 그의 대표작 중 하나가 「이교도들에 대항하여」(Adversus Nationes)입니다. 이 책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겪는 부당한 박해를 비판하고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2) 사도들의 서신 읽기

a. 서신의 공적 낭독

-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서신을 구약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은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 편지를 모든 거룩한 형제에게 읽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주를 힘입은” 명령이었습니다.
- 골로새서 4장 16절은 서신들이 여러 교회에서 돌려 읽혔음을 보여줍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러한 교환 읽기는 초대교회의 일체감을 강화하고, 사도적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수단이었습니다.
- 베드로후서 3장 15-16절은 바울 서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

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바울의 서신들을 “다른 성경”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주목됩니다.

- 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선언하여, 공적 낭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읽는 자”는 단수이고 “듣는 자”는 복수인데, 이는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듣는 예배 상황을 반영합니다.

b.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서의 수용

-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서신을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선언합니다.

- 이그나티우스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서신」 8장에서 사도들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것에서 피난처를 찾고, 사도들 안에서, 교회의 장로회와 같은 것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 폴리카르푸스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3장에서 바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복된 바울은... 여러분에게 편지들을 썼는데, 여러분이 그것들을 주의 깊게 연구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무라토리 정경 목록(170년경)은 당시 교회가 인정한 신약성경 목록을 보여주는데, 바울의 13개 서신과 다른 사도들의 서신

이그나티우스(Ignatius, c. 35-108)는 2세기 초에 안티오키아의 주교였으며,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하기 직전에 여러 교회에 보낸 일곱 통의 편지는 초기 기독교 역사와 신학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서신」(Epistle to the Philadelphians)입니다.

폴리카르푸스(Polycarp of Smyrna, c. 69-155)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2세기 중엽 소아시아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저서로 남아 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Epistle to the Philippians)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과 윤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2세기 중엽
까지 사도적 서신들이 정경으로 확립되었
음을 보여줍니다.

3) 예언과 권면

a. 예언의 은사 활용

- 초대교회 예배에서 예언은 중요한 요소였
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언
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었습니다.
-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예언의 목적을 명
확히 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
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
로하는 것이요." 이 세 가지 - 덕을 세
움(oikodome), 권면(paraklesis), 위로

무라토리 정경 목
록(Muratorian
Fragment)은 기원후
170년경 로마에서 작성
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
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
약 성경 정경 목록입니
다. ☒ 이 문서는 이탈
리아의 고고학자 루도
비코 안토니오 무라토
리(Ludovico Antonio
Muratori)가 18세기에
밀라노의 암브로시아나
도서관에서 발견하여 그
의 이름을 따게 되었습
니다.

(paramuthia) - 는 예언 사역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 사도행전 11장 27-28절은 아가보의 예언을 기록합니다: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예시하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예언은 실제로 성취되었고, 교회는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 사도행전 21장 10-11절의 또 다른 아가보의 예언은 상징적 행동을 동반했습니다: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 「디다케」 11장은 예언자들에 대한 실제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영으로 말하는 모든 선지자를 시험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는 아니니, 주님의 품성을 가진 자만이 선지자다."

b. 질서 있는 예언

- 초대교회는 예언의 은사를 인정하면서도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33절은 상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

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 이 구절은 여러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1) 예언의 수를 제한 (2-3명), (2) 예언의 분별 필요, (3) 순서대로 예언, (4) 자제력 행사, (5) 질서와 화평 추구.
-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22절도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언을 존중하되 분별력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 헤르마스의 「목자」는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참된 선지자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모든 악에서 떠나 있고, 세상의 헛된 욕망에서 자유롭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추고, 질문을 받기 전에는 대답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지도 않는다.”

나. 성찬 예식

1) 애찬과 성찬의 구분

a. 초기의 통합된 형태

- 초대교회 초기에는 애찬(agape meal)과 성찬(eucharist)이 하나의 통합된 예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떡을 떼며"와 46절의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는 이 통합된 형태를 시사합니다.
- 고린도전서 11장 20-21절은 당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즉 너희가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는 실제 식사와 성찬이 함께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 이 통합된 형태는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20절은 잔-떡-식사-잔의 순서를 보여주는데, 이는 유대 유월절 식사의 형식을 따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를 그대로 실천하려 했습니다.
- 「디다케」 9-10장은 초기 형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9장은 식사 전 감사 기도를, 10장은 식사 후 감사 기도를 제시합니다. "배부른 후에는 이렇게 감사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종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식과 믿음과 불멸을 감사합니다."

b. 점진적 분리와 그 이유

- 1세기 말부터 애찬과 성찬은 점진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의 바울의 책망, "너희가 먹고 마실 집

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
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는
이미 문제가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 고린도전서 11장 33-34절은 해결책을 제
시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려 모
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
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
임이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
이라.” 이는 실제 식사를 집에서 하고, 교
회 모임에서는 성찬만 하라는 권면으로 해
석될 수 있습니다.
- 플리니우스의 편지(112년)는 이 분리를 확
인합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 새벽에 모
여...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 평범하고 무해
한 음식을 함께 먹었는데, 내 명령 이후로
는 이것도 중단했다고 한다.” 이는 새벽 예
배(성찬 포함)와 저녁 식사(애찬)가 분리
되었고, 박해로 인해 애찬은 중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플리니우스의 편지(서
신 10.96)는 기원후 112
년에 소 플리니우스가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
에게 기독교인들을 어
떻게 다루어야 할지 묻
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이 문서는 초기 기독교
에 대한 로마 당국의 태
도와 기독교인들의 종
교 의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사
적 자료입니다.

- 이그나티우스는 이 분리를 전제로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서신」 8장은 “감독 없이는 세례를 베풀거나 애찬을 거행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하여, 애찬을 별도의 행사로 언급합니다.

c. 애찬의 지속과 변형

- 애찬과 성찬이 분리된 후에도 애찬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형제애를 나누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터툴리아누스는 「호교론」 39장에서 2세기 말 카르타고의 애찬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 “우리 만찬의 동기는 그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어로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 불립니다... 우리는 이 만찬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습니다... 우리는 손을 씻은 후 등불이 켜진 가운데 앉습니다. 각자는 성경이나 자기 영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도록 초청받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서신」(Epistle to the Smyrnaeans)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안티오키아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하기 직전에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당시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던 폴리카르푸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이기도 했으며, 교회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만찬은 기도로 시작했듯이 기도로 끝납니다.”

-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은 애찬과 성찬의 구별을 명확히 합니다. “애찬(아가페)을 할 때는... 감독이 참석하면 그의 손에서 감사한 떡을 받으라.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몸인 성찬이 아니다.”
- 4세기 이후 애찬은 점차 사라지거나 자선만찬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교회의 구제와 친교 활동으로 계속되었습니다.

히폴리투스(Hippolytus of Rome, c. 170-235)는 3세기 초 로마에서 활동한 초기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그의 저서로 알려진 「사도 전승」(Apostolic Tradition)은 초기 교회의 전례, 규율, 직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2) 성찬의 신학적 의미

a. 그리스도의 몸과 피

- 초대교회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재적 임재로 이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

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참여”(koinonia)는 실제적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 고린도전서 11장 27-29절은 성찬의 거룩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 이그나티우스는 「서머나 교회에 보낸 서신」 7장에서 도케티스트들을 비판하며 성찬의 실재성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성찬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 곧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자비로 일으키신 그 살임을 고백하지 않으므로, 성찬과 기도에서 떠나 있습니다.”
- 유스티누스 마르티르는 「제1호교론」 66

「서머나 교회에 보낸 서신」(Epistle to the Smyrnaeans)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안티오키아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하기 직전에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당시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던 폴리카르푸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이기도 했으며, 교회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장에서 더 상세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떡과 포도주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로고스로 성육신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살과 피를 가지셨듯이, 그분의 말씀으로 감사 기도가 드려진 음식도 - 우리의 살과 피가 변화에 의해 양육되는 그 음식도 - 성육신하신 예수의 살과 피라고 배웠습니다.”

- 이레나이우스는 「이단 반박」 4권 18장에서 성찬을 통한 부활의 보증을 강조합니다: “떡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성찬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도 성찬으로 양육되고... 때가 되면 부활할 것입니다.”

b. 새 언약의 표징

- 초대교회는 성찬을 새 언약의 핵심 표징으로 이해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의 “

이레나이우스(Irenaeus of Lyons, c. 130-202)의 「이단 반박」(Adversus Haereses)은 2세기 후반에 쓰인 초기 기독교 신학의 기념비적인 저서입니다. 이 책은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여러 이단, 특히 영지주의(Gnosticism)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정통 기독교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34절의 새 언약 예언의 성취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기념”(anamnesis)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과거 사건을 현재화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월절이 출애굽을 현재화했듯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현재화했습니다.
- 히브리서 9장 15-20절은 새 언약과 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성찬의 포도주는 이 새 언약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 키프리아누스는 「서신」 63장에서 포도주와 물을 섞는 관습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

키프리아누스(Cyprian, c. 200-258)는 3세기 중엽 카르타고의 주교이자 중요한 교부입니다. 그의 「서신」(Epistulae)은 하나의 서가 아니라, 그가 주고 받았던 81통의 서신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서신들은 250년경의 데키우스 황제 박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작성되어, 당시 교회의 상황과 신학적 논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잔 안에서 물이 포도주와 섞일 때, 백성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신자들의 무리가 그들이 믿는 분과 결합됩니다. 이 물과 포도주의 혼합과 결합은 주님의 잔 안에서 분리될 수 없게 됩니다.”

3) 공동체성의 강화

a. 한 몸 됨의 표현

- 성찬은 개인적 경건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적 행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의 떡을 나누어 먹는 행위 자체가 일치를 창조했습니다.
- 「디다케」 9장 4절의 기도는 이 일치의 비전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교회에 관하여 이렇게 감사하라: 이 떡이 산 위에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되었듯이, 당신의 교

회도 땅 끝에서 모여 당신의 나라로 들어
가게 하소서.”

- 키프리아누스는 「교회의 일치에 관하여」
에서 성찬과 교회 일치의 불가분성을 강조
합니다. “주님의 희생 자체가 그리스도인
백성의 일치를 선언합니다. 많은 낱알이
함께 갈려 반죽이 되어 한 덩어리가 되듯
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떡 안
에서 한 몸임을 알아야 합니다.”
-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고린도전서 설
교」에서 이를 더욱 강조합니다. “무엇이
떡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을 받는
자들은 무엇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몸이
다. 많은 몸들이 아니라 한 몸이다.”

b. 영적 교제의 시간

- 성찬식 전후의 의식들은 공동체의 영적 교
제를 깊게 했습니다. 먼저, 평화의 입맞춤
(holy kiss)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6

키프리아누스(Cyprian, c. 200-258)는 3세기 중엽 카르타고의 주교이자 순교자입니다. 그의 중요한 저서인 「교회의 일치에 관하여」(De Unitate Ecclesiae)는 교회의 분열을 경고하고, 교회의 통일성과 주교의 권위를 강조한 작품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John Chrysostom, 347-407)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웅변가이자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고린도전서 설교」(Homilies on First Corinthians)는 그가 안티오키아에서 사역하던 시절에 고린도전서 전체를 연속해서 강해한 설교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절,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등에서 언급되는 이 관습은 성찬 전 화해와 일치를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 유스티누스 마르티르는 「제1호교론」 65장에서 “기도를 마친 후 우리는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한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 23-24절의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 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라는 명령의 실천이었습니다.
- 성찬 중에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도 성찬 중에 시편과 찬송을 불렀습니다. 특히 시편 116편(“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 성찬 후에는 감사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디다케」 10장은 상세한 감사 기도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공동 기도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다. 찬양과 경배

1) 시편 찬송

a. 유대 전통의 계승

- 초대교회의 찬양은 유대 회당의 시편 찬송 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시편을 인용하시고(마 27:46의 시 22:1),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셨습니다(마 26:30). 초대교회는 이 전통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았습니다.
-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시"는 주로 시편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도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

는 찬송할지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찬송 (psalleteo)은 시편을 노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도행전 2장 25-28절, 4장 25-26절은 초대교회가 시편을 그리스도론적으로 재해석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16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편 2편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 터툴리아누스는 「호교론」 39장에서 시편 찬송을 언급합니다: “각자는 거룩한 성경이나 자기 영감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노래하도록 초청받습니다.” 플리니우스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신으로 찬양하는 노래를 교대로(antiphonally) 부른다”고 보고하는데, 이는 시편 교독의 전통을 시사합니다.

b. 그리스도론적 재해석

- 초대교회는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

해석하고 찬양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구절로, 그리스도의 승천과 통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행 2:34-35, 히 1:13).

-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수난을 예언한 것으로 읽혔고,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는 그리스도의 거절과 영광을 나타냈습니다(행 4:11, 벰전 2:7).
- 아타나시우스는 「마르켈리누스에게 보낸 서신」에서 시편의 그리스도론적 읽기를 체계화했습니다. “시편 전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어떤 시편은 그의 오심을, 어떤 것은 그의 수난을, 어떤 것은 그의 부활과 승천을 노래한다.”
- 이러한 재해석은 찬양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4편 “영광의 왕이 누

아 타 나 시 우 스 (Athanasius, c. 296-373)는 4세기 기독교의 주요 교부이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입니다. 그의 「마르켈리누스에게 보낸 서신」은 시편을 어떻게 읽고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는, 영성과 묵회에 관한 중요한 저서입니다.

구시냐'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축하하는 찬
송이 되었고, 시편 45편은 그리스도와 교
회의 혼인을 노래하는 것으로 불렸습니다.

2) 영적 찬양의 즉흥성

a.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찬양

-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 중 하나는 성령의 즉흥적 인도를 받는 찬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계획되지 않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은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라고 하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찬송을 가져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의 계획된 찬양과는 다른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 사도행전 16장 25절은 바울과 실라가 "한 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기록합니다. 감옥에서의 이 즉흥적 찬양은 지진과 간수의 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 오데스의 솔로몬(2세기)은 초기 기독교의 영적 찬양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주님께 서 내 입을 여시니, 내 입이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내 심장을 여시니, 그분의 사랑이 넘쳐흐릅니다."

b. 새 노래의 창작

- 초대교회는 전통적인 시편과 함께 새로운 찬양을 창작했습니다. 계시록에는 여러 "새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의 "새 노래"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고, 14장 3절과 15장 3절도 새로운 찬양을 언급합니다.
- 신약성경 자체에 초기 찬송가로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11절

(그리스도 찬가), 골로새서 1장 15-20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등은 리드미컬한 구조를 가진 초기 찬송으로 여겨집니다.

- 플리니우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신으로 찬양하는 노래 (carmen Christo quasi deo)"를 불렀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찬양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줍니다.
- 에베소서 5장 14절은 초기 찬송의 한 구절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이시리라." 이는 세례 때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세례와 교육

가. 세례 준비 교육(카테쿠멘)

1) 3년간의 준비 과정

a. 철저한 교육 과정

- 초대교회는 세례를 매우 엄숙하게 여겨, 철저한 준비 과정을 요구했습니다.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 17장은 "듣는 자들(catechumens)은 3년 동안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긴 기간은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철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이 3년의 기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폴리투스는 계속해서 "그러나 사람이 열심이 있고 일을 잘 수행한다면, 시간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하라"고 덧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수년간의 준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 교육 내용은 포괄적이었습니다. 「디다케」 7장은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이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

히 폴 리 투 스 (Hippolytus of Rome, c. 170-235)는 3세기 초 로마에서 활동한 초기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그의 저서로 알려진 「사도 전승」(Apostolic Tradition)은 초기 교회의 전례, 규율, 직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습니다.

은 앞의 6장에 걸친 윤리적 가르침(두 길의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오리게네스의 학교에서는 성경, 철학, 윤리학까지 가르쳤습니다.

-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파이다고고스」에서 이 교육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말씀이신 교사는 먼저 우리를 권면하여 악에서 돌아서게 하고, 다음에는 훈련시켜 선을 행하게 하며, 마침내는 관상으로 인도하여 신적 신비를 보게 한다.”

b. 단계적 교육

- 세례 준비 교육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단계는 ‘듣는 자들(hearers)’로, 예배의 말씀 부분에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릎 꿇는 자들(kneelers)’로, 특별한 기도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선택된 자들(electi)’로, 세례를 받기 직전의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는 2세기 말의 중요한 교부이자 신학자로, 그의 저서 「파이다고고스」(Paedagogus)는 ‘교사’ 또는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적인 교사로 제시하며, 그리스도인들이 회심 후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다.

- 예루살렘의 시릴은 4세기에 행한 교리 교육 강의를 남겼는데, 이는 초대교회 교육의 체계성을 보여줍니다. 세례 전 18개의 강의와 세례 후 5개의 신비 교육(Mystagogical Catecheses)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터툴리아누스는 「세례론」에서 세례 준비의 엄격함을 강조합니다. "세례를 구하는 자들은 빈번한 기도와 금식과 무릎 꿇음과 철야로 준비해야 하며, 과거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
- 「사도 헌장」은 교육 과정을 더 상세히 설명합니다. "카테쿠멘은 3년간 교육받는다. 그러나 진지하고 열심이 있다면 더 짧을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이다."

터툴리아누스(Tertullian)는 3세기 초에 활동한 초기 기독교 신학자로, 그의 저서 「세례론」(De Baptismo)은 기독교의 세례 의식에 대한 교리적, 실천적 가르침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헌입니다.

2) 신앙과 삶의 검증

a. 스폰서 제도

- 초대교회는 세례 지원자에 대한 엄격한 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 15-16장은 이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처음 듣고자 하는 자들을 교사들에게 데려올 때, 그들이 듣기에 적합한지 묻는다. 그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증언해야 한다."
- 스폰서(보증인)는 지원자의 신앙과 품행을 보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원자를 교회에 소개하고, 교육 기간 동안 멘토 역할을 하며, 세례식에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 터툴리아누스는 「세례론」 18장에서 스폰서의 책임을 경고합니다: "보증인들도 위험을 감수한다. 그들이 보증한 사람이 나쁜 성향을 보이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제도는 교회 공동체의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새 신자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지원과 감독 하에 성장했습니다.

b. 생활의 변화 확인

- 세례 준비 기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삶의 변화였습니다. 히폴리투스는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규정을 제시합니다: "조각가나 화가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만두든지 거절당할 것이다. 검투사나 검투사 훈련사, 야수와 싸우는 자... 그만두든지 거절당할 것이다."
- 매춘부, 마술사, 점성술사, 이교 제사장 등은 직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군인의 경우 살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신앙이 삶 전체의 변화를 요구함을 보여줍니다.
- 「디다케」 7장은 도덕적 준비를 강조합니다: "세례 전에 세례 주는 자와 받는 자, 그

리고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금식하게 하라.” 이 금식은 영적 준비와 진정성의 표현이었습니다.

- 키프리아누스는 「서신」 69장에서 세례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앙과 회개의 진정성이 먼저 검증되어야 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돌아왔는지, 충분한 애통과 눈물로 자신의 죄를 슬퍼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 세례 의식의 의미

1) 죽음과 부활의 상징

a. 그리스도와 연합

- 초대교회에게 세례는 단순한 입교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신비적 연합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3-4절은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 골로새서 2장 12절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확증합니다.
- 초대교회의 세례 방식은 이 신학을 반영했습니다. 가능한 한 흐르는 물에서 전신을 침수시켰습니다. 「디다케」 7장은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베풀라. 흐르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에서, 찬물이 없으면 따뜻한 물에서 베풀라. 둘 다 없으면 머리에 세 번

물을 부으라”고 지시합니다.

- 시릴은 「신비 교육」 2장에서 세례의 상징을 설명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이다. 같은 순간에 여러분은 죽고 태어났다. 구원의 물이 무덤이자 어머니가 되었다.”

b. 새 생명의 시작

- 세례는 새로운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요한 복음 3장 5절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은 세례를 중생의 수단으로 이해하게 했습니다.
-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하여, 세례를 “중생의 씻음”이라 부름

시릴 (Cyril of Jerusalem, c. 313-386)은 4세기 예루살렘의 주교였습니다. 그의 「신비 교육」(Mystagogical Catecheses)은 예비 신자들을 위한 일련의 교리 교육 중 마지막 다섯 강론을 가리킵니다. 이 강론들은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제 막 경험한 세례, 견진, 성찬의 '신비'(mysteries)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니다.

- 터툴리아누스는 「세레론」 3-4장에서 물의 상징성을 설명합니다. "물은 성령의 거처가 되기에 합당한 원초적 요소다.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셨다. 물은 생명을 낳는 최초의 물질이었다."
- 세례 후 흰옷을 입는 관습도 새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합니다. 흰옷은 보통 일주일간 입었는데, 이 기간을 "흰옷 주간"이라 불렀습니다.

2) 공동체로의 편입

a. 한 몸의 지체가 됨

- 세례는 개인적 구원의 표시일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의 편입을 의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선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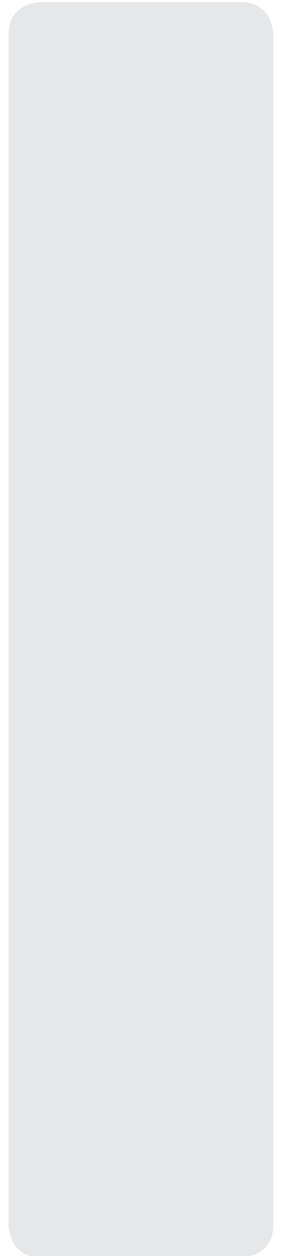
-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세례를 통한 일치를 강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례는 모든 사회적 구분을 초월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 세례식은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부활절과 오순절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와 세례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 이그나티우스는 「서머나 교회에 보낸 서신」 8장에서 공동체와 세례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감독 없이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 이는 세례가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교회의 공적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b. 형제자매의 관계

- 세례를 통해 새 신자는 모든 신자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른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실제적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 세례 직후 새 신자는 처음으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교회 구성원이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히폴리투스는 세례 직후 우유와 꿀을 주는 관습을 언급하는데, 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상징했습니다.
- 「바나바 서신」 11장은 세례의 공동체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물로 내려가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하나, 열매를 맺고 마음에 예수를 향한 경외와 영 안의 소망을 가지고 올라온다."
- 암브로시우스는 「신비에 관하여」에서 세례 후의 발 씻김 의식을 언급하는데, 이는

암브로시우스(Ambrose of Milan, c. 339-397)는 4세기 말의 중요한 교부이자 밀라노의 주교였습니다. 그의 저서 「신비에 관하여」(De Mysteris)는 세례와 성찬식 등 기독교 성례전에 대한 강론을 담고 있으며, 특히 예비신자들에게 세례 후 처음으로 성례전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공동체로 들어감을 의미했습니다.







5 장

/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비교

제 5 장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비교

훈련 목적

- *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 * 현대교회가 배워야하는 초대교회 비밀 파악하기
- * 예수께서 원하는 초대교회 스타일 파악하기
- * 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좋아했는지 이유 파악하기
- * 초대교회의 독특한 예배, 집회, 모임, 훈련 파악하기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1. 교회 조직과 리더십

가. 초대교회의 단순한 조직

1) 카리스마적 리더십

a. 성령의 은사에 기초한 리더십

- 초대교회의 리더십은 철저히 성령의 은사에 기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직분이나 학벌이 아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리더십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초대교회가 일곱 집사를 선택할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를 우선시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었습니다.

b. 집단 지도체제의 운영

- 초대교회는 한 사람의 독단적인 리더십보다는 집단 지도체제를 선호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것을 결정하였노니"(행 15:28)라는 표현은 인간의 결정과 성령의 인도가 조화를 이룬 집단 지도체제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 디다케(초대교회의 교훈서)는 "너희는 주의 날에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감사하되, 먼저 너희 잘못을 고백하여 너희 제사가 깨끗하게 하라"고 가르치며, 공동체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c. 섬김의 리더십 실천

- 초대교회 리더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했습니다. 마가복

음 10장 43-44절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이 초대교회 리더십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 베드로전서 5장 2-3절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권위적이고 계층적인 리더십이 아닌, 모범과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2) 장로와 집사의 역할

a. 장로의 영적 돌봄 사역

- 장로(프레스비테로스)는 초대교회에서 영

적 돌봄과 가르침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들은 단순히 행정적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양떼를 돌보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장로의 사역이 성령의 임명에 의한 거룩한 책임임을 보여줍니다.

b. 집사의 실질적 봉사 사역

- 집사(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 교회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일곱 집사를 세운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집사들은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여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감독들과 집사들"을 함께 언급한 것은 이 두 직분이 초대교회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집사들은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필수적인 일꾼이었습니다.

c. 직분의 유기적 협력

- 초대교회의 장로와 집사는 위계적 관계가 아닌 유기적 협력 관계였습니다. 로마서

12장 4-5절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각자의 은사와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동등하게 중요했습니다.

3) 평신도 중심의 사역

a. 만인제사장 정신의 구현

- 초대교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는 만인제사장 정신을 실제로 구현했습니다. 모든 신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

명을 감당했습니다.

- 사도행전 8장 4절은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보여줍니다. 핍박으로 흠어진 평신도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b. 은사에 따른 다양한 사역 참여

-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은 "그런즉 형제들이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특정인의 독점이 아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참여하는 참여적 예배였습니다.
- 에베소서 4장 11-12절은 "그가 어떤 사람

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선언합니다. 직분자들의 역할은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c. 가정교회를 통한 평신도 리더십

- 초대교회는 주로 가정에서 모였고, 이는 평신도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의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 골로새서 4장 15절의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 1장 2절의 “네 집에 있는 교회” 등의 표현은 가정교회가 보편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 이러한 가정교회들은 그 집의 주인이 자연

스럽게 리더 역할을 했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평신도이면서도 바울과 동역하며 아볼로 같은 유능한 설교자를 가르치는(행 18:26)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나. 현대교회의 제도화된 구조

1) 계층적 조직 체계

a. 복잡한 직분 구조의 발전

-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와 달리 매우 복잡한 직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교육목사, 찬양목사 등 다양한 전문 사역자들과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 세분화된 평신도 직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세분화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필요에 의해 생겨났지만, 때로는 계층화와 관료화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다.

- 많은 교회에서 직분이 섬김의 도구가 아닌 권위와 명예의 상징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3장 6-8절에서 예수님이 경계하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b. 의사결정의 중앙집권화

- 현대 많은 교회들은 담임목사나 소수의 리더십에 의사결정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교회 운영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의 참여와 주인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의사결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 특히 대형교회의 경우, 일반 성도들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

으며, 이는 교회 공동체성의 약화로 이어 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의 “눈이 손 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잊혀진 것 같습니다.

c. 직업적 성직자 계층의 형성

- 현대교회는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성직자 계층이 사역의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이는 전문성과 체계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평신도들이 사역은 목회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은 단순한 관객이나 소비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전문 성직자 중심

a. 신학 교육의 필수화

- 현대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체계적인 신학 지식과 목회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학력이 영성보다 중요시되는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성령의 은사와 부르심보다 학위와 자격증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예수님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학문 없는 범인"(행 4:13)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한 원리가 약화된 것입니다.

b. 사역의 전문화와 분업화

- 현대교회는 예배, 교육, 선교, 상담, 음악 등 각 분야별로 전문 사역자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역의 질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평신도들의 사역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라는 이유로 사역에서 물러서게 됩니다.
- 또한 사역자들 간에도 전문 영역의 장벽이 생겨,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사역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3장 5-9절에서 바울이 강조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는 협력의 정신과 거리가 있습니다.

c. 평신도의 수동적 참여

- 전문 성직자 중심의 체제는 평신도들을 수동적인 참여자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 참석과 헌금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행 2:46)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참여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3) 프로그램 중심 운영

a.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 현대교회는 성도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제자훈련, 성경공부, 큐티모임, 전도프로그램, 치유사역, 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신앙 성장을 돕는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프로그램 자체가 목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일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영적 성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경고와 연결됩니다.

b. 관계보다 활동 중심

-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은 자칫 관계보다 활동을 중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도 정작 깊은 영적 교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는 초대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교제하며"(행 2:42) 살았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 프로그램의 성공이 참석 인원이나 완료율로 평가되면서, 한 영혼의 진정한 변화보다는 수치적 성과가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눅 15:3-7) 마음이 약화된 것입니다.

c. 획일화된 신앙 패턴

- 프로그램 중심 운영은 신앙생활을 획일화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거나,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는 명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7)고 하신 다양성의 원리와 충돌합니다.

2. 신앙 실천의 차이

가. 초대교회의 급진적 제자도

1) 재산 공유와 나눔

a. 자발적인 재산 공유

- 초대교회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자

발적인 재산 공유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45절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자발적 나눔이었습니다.

- 사도행전 4장 32절은 더 나아가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소유 개념 자체의 혁명적 변화였습니다.

b. 필요에 따른 분배

- 초대교회의 경제 원리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행 2:45)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랑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사도행

전 4장 34-35절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 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고 기록합니다.

- 이러한 나눔은 고린도후서 8장 13-15절에서 바울이 말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는 원리를 실천한 것입니다. 넉넉한 자가 부족한 자를 도와 모두가 충족함을 누리는 공동체였습니다.

c. 나눔을 통한 증거

- 초대교회의 이러한 급진적 나눔은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보라 저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라고 감탄했다고 터툴리아누스는 기록

합니다.

-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사도행전 2장 47절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 일상 속 신앙 실천

a. 매일의 예배와 교제

-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주일에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합니다. 예배와 교제가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 히브리서 3장 13절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면대로, 그들은 매일 서로

를 돌아보고 격려했습니다.

b.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증거

-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 직장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그들의 정직함과 사랑은 두드러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권면이 그들의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c.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 초대교회는 가정을 신앙 교육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대로,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졌습니다.
-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믿음을 언급한 것처럼, 신앙이 가정을 통해 대를 이어 전수되었습니다.

3) 박해 속의 신앙 고백

a. 순교를 각오한 신앙

-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행 7장)를

시작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 폴리카르푸스 감독은 화형대에서 "86년간 나를 섬기신 분을 어찌 부인하겠는가"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순교 정신은 터툴리아누스가 말한 대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어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b.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임

-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특권이었습니다.
-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

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그들의 위로였습니다.

c. 박해를 통한 복음의 확산

- 역설적이게도 박해는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라는 기록처럼, 박해로 인한 분산이 복음의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 빌립보서 1장 12-14절에서 바울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말한 것처럼,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 현대교회의 도전과 한계

1) 개인주의적 신앙 경향

a. 개인 구원 중심의 신앙

- 현대교회는 개인의 구원과 축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만 집중하면서, 공동체성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는 공동체 정신과 거리가 있습니다.
-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종교 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영적 필요만 충족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빌립보서 2장 4절의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 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는 가르침과 충돌합니다.

b. 신앙과 삶의 분리

-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의 신앙과

평일의 삶을 분리시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행동하지만,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중적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 매주 예배는 드리지만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주일 신앙인"이 많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 13-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과 거리가 멉니다.

c. 공동체 의식의 약화

- 현대교회에서는 깊은 영적 교제보다는 피상적인 만남이 주를 이룹니다. 많은 성도들이 수년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의 삶을 잘 모르고, 진정한 나눔이 없습니다. 이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그가 빛 가

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라는 참된 교제와 거리가 있습니다.

- 대형교회의 경우 익명성 속에 숨어 책임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관중 신자”가 많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0장 24-25절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권면과 반대됩니다.

2) 주일 신앙과 일상의 분리

a. 성속 이원론적 사고

-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활동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세속적이라는 이원론적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23-24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이러한 이원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의 성공과 교회에서의 신앙을 별개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비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용인하거나, 세상적 성공을 위해 신앙적 원칙을 타협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b. 예배 중심의 편향된 신앙

- 현대교회는 주일 예배 참석을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하지만, 로마서 12장 1절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처럼,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는 신앙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가서 6장 8절의 "사람아 주께서 선택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적 신앙의 실천과 거리가 있습니다.

c. 직장과 가정에서의 증거 부족

-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동료들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가정에서도 신앙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는 말씀이 무색하게, 많은 이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깁니다.

3) 물질주의와 세속화의 영향

a. 번영신학의 확산

- 현대교회에 널리 퍼진 번영신학은 물질적 축복을 신앙의 증거로 여기는 왜곡된 복음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우선순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투자로, 기도를 거래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이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는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b. 소비주의적 신앙생활

-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종교적 상품을 소비하는 곳으로 인식합니다.

더 나은 설교, 더 좋은 프로그램, 더 편안한 시설을 찾아 교회를 옮겨 다니는 "교회 쇼 핑" 현상이 만연합니다.

- 이는 에베소서 4장 3절의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정반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섬김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책임보다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c. 성공 지향적 가치관

- 현대교회는 세상적 성공의 기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공을 숫자와 규모로 평가하고, 개인의 신앙도 사회적 성공으로 측정합니다. 이는 고린도 전서 1장 27-28절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라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충돌합니다.
-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하신 섬김의 리더십보다는, 세상적 권력과 영향력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 선교와 전도의 방법

가. 초대교회의 관계 중심 전도

1) 삶의 증거를 통한 전도

a. 변화된 삶이 주는 영향력

-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은 변화된 삶 자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한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담대함과 지혜가 예수님과의 만남

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 고린도후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의 편지였습니다. 그들의 사랑, 정직, 희생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b. 공동체의 사랑이 만드는 매력

-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불신자들에게 강한 매력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 터툴리아누스는 당시 이교도들이 "보라, 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들은 서로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감탄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사

량의 공동체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로마 사회에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c. 고난 중의 기쁨이 주는 도전

-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보여준 기쁨과 평안은 강력한 전도의 도구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감옥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초월적 기쁨은 불신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찬양은 간수와 그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행 16:31-34).

2) 가정과 직장에서의 복음 전파

a. 오이코스(가정) 전도

- 초대교회의 전도는 오이코스, 즉 가정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선포처럼, 한 사람의 회심이 온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 고넬료 가정(행 10장), 루디아 가정(행 16:14-15), 빌립보 간수 가정(행 16:31-34) 등의 사례는 가정 전도의 효과성을 보여줍니다. 가정은 자연스러운 전도의 장이었고, 가족 관계를 통해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b. 직업을 통한 선교

-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직업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행 18:3), 루디

아는 자주 장사를 하면서 신앙을 전파했습니다(행 16:14). 그들에게 직업은 생계 수단이면서 동시에 선교의 접착점이었습니다.

- 골로새서 3장 22-24절의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주께 하듯 하라”는 가르침대로, 직장에서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c. 일상적 만남을 통한 복음 전파

-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상의 모든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시장에서, 우물가에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40절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항상 복음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 현대교회의 프로그램 중심 전도

1) 대형 집회와 이벤트

a. 전도 집회의 장단점

- 현대교회는 대형 전도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이는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거나, 결신자들에 대한 후속 관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집회 중심의 전도는 개인적 관계 형성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명령의 완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b. 이벤트 의존적 전도의 문제

- 많은 교회들이 특별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서만 전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평상시 관계 전도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전도를 특별한 때에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 또한 화려한 이벤트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평범한 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지적하신 문제와 유사합니다.

c. 개인 전도 역량의 약화

- 대형 집회와 이벤트에 의존하다 보니, 개인

성도들의 전도 역량이 약화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말하며 전도를 전문가들에게만 맡기려 합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과 거리가 있습니다.

2) 미디어와 기술 활용

a. 온라인 전도의 가능성과 한계

- 현대교회는 인터넷,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려 노력합니다. 이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온라인 사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 그러나 온라인 전도는 깊은 관계 형성과 제자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의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

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
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이라는
인격적 관계와 헌신을 온라인으로 완전히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b. 기술 의존의 위험성

- 미디어와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성령의 역사와 인격적 만남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바울의 고백이 잊혀질 위험이 있습니다.
- 또한 화려한 영상과 음향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보다는 기술적 화려함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c. 비인격적 전도의 문제

- 미디어를 통한 전도는 자칫 비인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생명의 전수입니다. 요한일서 1장 1-3절에서 요한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증언한 것처럼, 복음은 인격적 만남과 경험을 통해 전달되어야 합니다.

3) 전문화된 전도 전략

a. 전도 프로그램의 체계화

- 현대교회는 전도폭발, 새생명축제, 알파코스 등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체계적인 훈련과 전략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러나 프로그램에 너무 의존하면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제한할 수 있고, 전도를 기계적인 과정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성령으로 난 사람
도 다 그러하니라"는 성령의 자유로운 역
사가 프로그램의 틀에 갇힐 수 있습니다.

b. 대상별 맞춤 전략

- 현대교회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등 연령별로, 또는 직업별, 관심사별로 세분화된 전도 전략을 개발합니다. 이는 각 그룹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하지만 지나친 세분화는 복음의 보편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는 복음의 통합성이 간과될 수 있습니다.

c. 전문 사역자 의존

- 전도가 전문화되면서 일반 성도들은 전도를 전문 사역자들의 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1-12절은 직분자들의 역할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명시합니다. 모든 성도가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소수의 전문가에게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6 장

/

초대교회의 유산

제 6 장 초대교회의 유산

훈련 목적

- *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 * 현대교회가 배워야하는 초대교회 비밀 파악하기
- * 예수께서 원하는 초대교회 스타일 파악하기
- * 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좋아했는지 이유 파악하기
- * 초대교회의 독특한 예배, 집회, 모임, 훈련 파악하기

한주간 숙제

- * 매일 성막기도 드리기
- * 영성훈련 필독서 읽기
- * 영성일지 쓰기

1. 회복해야 할 영적 가치

가. 첫사랑의 회복

1) 그리스도 중심의 열정

a.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절대적 헌신

- 오늘날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의 열정입니다. 계시록 2장 4-5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경고는 현대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떠났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고백은 단순한 신앙고백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현대교회에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9장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쇠사슬입니다"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존재 자체였습니다. 현대교회도 이러한 절대적 헌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활동이나 종교적 의무가 아닌, 그리스도 자신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 안정,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는 부차적인 위치에 두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b. 십자가 중심의 신앙

- 현대교회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초대교회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삶의 원리였습니다.
- 누가복음 9장 23절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이 실제 삶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현대교회가 종종 추구하는 편안하고 축복받는 신앙

생활과는 다른, 희생과 헌신의 삶이 요구됩니다.

-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는 고백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 터툴리아누스는 「군인의 화관에 관하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매 걸음마다, 모든 행동마다, 집을 나서고 들어올 때마다, 옷을 입고 신을 신을 때마다, 목욕할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등불을 켤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앉을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십자가가 일상생활 전체를 지배했음을 보여줍니다.

c. 성령 충만의 추구

- 현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갈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 사도행전 4장 31절은 "빌기를 다함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은 담대한 증거의 능력을 가져왔습니다. 현대교회도 프로그램이나 전략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 스가랴 4장 6절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이 교회 사역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 노력과 방법론에 의존하기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2)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

a. 단순하고 명확한 복음

- 현대교회는 복음의 단순성과 명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은 복음의 핵심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고백합니다. 현대교회는 복음에 너무 많은 것을 덧붙여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는 단순명료한 메시지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학문적 지식이나 복잡한 신학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 로마서 1장 16절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b. 은혜 중심의 구원

- 현대교회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다는 진리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 그러나 동시에 야고보서 2장 17절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균형도 필요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참된 믿음은 변화된 삶으로 나타납니다.
-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가르칩니다. 현대교회는 율법주의와 방종 사이에서 은혜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나. 공동체성의 강화

1)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실천

a. 깊은 영적 교제의 회복

- 현대교회는 피상적인 만남을 넘어 깊은 영적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에서 '교제'(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깊은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시작되어 성도 간의 교제로 확장됩니다.
-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서로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격려하는 적극적인 돌봄을 의미합니다. 현대교회는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상호 책임적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명령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이는 서로의 약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교회에서는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진실한 나눔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야고보서 5장 16절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투명한 관계는 신뢰와 사랑의 공동체에서만 가능합니다. 현대교회는 이러한 신뢰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b. 물질의 나눔 실천

-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의 급진적인 나눔 정신을 현대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정신이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 고린도후서 8장 13-15절은 균형 잡힌 나눔
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
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
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
때에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
려 함이라.”
- 요한일서 3장 17절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
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고 도전합니다. 현대교회
는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이들과 기꺼이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
니다.

-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물질의 나눔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2) 소그룹 운동의 활성화

a. 가정교회 모델의 현대적 적용

- 초대교회의 가정교회 모델은 현대에도 유효합니다. 로마서 16장 5절의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는 표현처럼, 가정은 여전히 중요한 신앙 공동체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현대의 소그룹이나 구역 모임, 셀교회 등은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현대적 적용입니다. 이러한 소그룹에서는 대그룹에서 불가능한 친밀한 교제와 돌봄이 가능합니다. 15-20명 정도의 소그룹은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적정 규모입니다.

- 사도행전 2장 46절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는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현대교회도 주일 대예배와 주중 소그룹 모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약속은 소그룹의 영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영적 가치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b. 제자훈련의 강화

- 현대교회는 체계적인 제자훈련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

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재생산 가능한 제자훈련의 원리입니다.

-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대위임령은 단순히 전도가 아니라 “제자를 삼아”라고 명령합니다. 현대교회는 결신자를 얻는 것에 서 멈추지 말고, 그들을 성숙한 제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 골로새서 1장 28절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목표를 제시합니다. 제자훈련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입니다.
- 히브리서 5장 12절은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라고 책망합니다. 모든 성도는 결국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3) 세대 간 연합과 소통

a. 세대 통합적 사역

- 현대교회는 세대 간 분리를 극복하고 통합적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말라기 4장 6절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약속합니다.
- 디모데전서 5장 1-2절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으로서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 시편 145편 4절은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송하며 주의 능력을 선포하리이

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유산은 세대를 통해 전수되어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세대 별 프로그램에 치중하기보다 세대 간 교류와 멘토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 디도서 2장 3-5절은 나이 든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도록 권면합니다. 이러한 세대 간 멘토링은 지혜와 경험의 전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b.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 현대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 투자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7절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명령합니다.
-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은 평생의 기초가 됩니다.

-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개방성

1) 은사 사역의 균형

a. 모든 은사의 인정과 활용

- 현대교회는 성령의 모든 은사를 인정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어떤 형태로든 은사를 받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이 모든 일은 같

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 가르칩니다.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은사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로마서 12장 6-8절은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등 다양한 은사를 언급합니다. 초자연적 은사뿐 아니라 자연적 은사도 성령의 은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b. 질서와 덕을 세우는 원칙

- 은사 사용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니

니라”고 선언합니다. 은사는 혼란이 아닌
질서 가운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은 “그런즉 형제들이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
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가르칩
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 권면합니다. 개인의 영적 체험보다 공
동체의 유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22절은 “성령을 소
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
이라도 버리라”고 균형 잡힌 접근을 가르
칩니다.

2) 기도와 말씀의 조화

a. 깊은 기도 생활의 회복

- 현대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들은 오직 기도로만 해결됩니다.
-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일시적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현대교회는 프로그램과 활동에 치중하기보다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기도는 사역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 핵심입니다.
-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현대교회는 즉각적 응답을 기대하기보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b. 말씀 중심의 신앙

- 기도와 함께 말씀에 대한 헌신도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의 가치를 선언합니다.
-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현대교회는 인간의 지혜와 방법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합니다. 말씀 묵상과 순종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성도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능력입니다.

2. 실천적 적용 방안

가. 단순하고 본질적인 교회

1) 불필요한 프로그램 정리

a. 본질 중심의 사역 재편

- 현대교회는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교회의 핵심 활동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말씀, 교제, 성찬, 기도 - 이 네 가지가 교회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눅 10:38-42)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교회도 많은 프로그램으로 분주하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려 하지 말고, 시기와 필요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프로그램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무분별한 확장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 빌립보서 3장 13-14절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는 고백처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b. 성도들의 부담 경감

- 과도한 프로그램은 성도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30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멧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합니다.
- 안식일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10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현대 성도들도 영적, 육체적 안식이 필요합니다. 매일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라 지친 성도들은 오히려 영적 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누가복음 10장 41-42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 만이라도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

보다 질, 활동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2)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사역

a. 말씀 연구와 적용의 강화

- 현대교회는 말씀 연구와 적용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한 낭독이 아니라 이해와 적용이 중요합니다.
-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베뢰아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현대교회도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너는 진리의 말씀

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
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훈련
이 필요합니다.

b. 기도 사역의 우선순위화

- 교회는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고 선언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 사도행전 1장 14절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 역대하 7장 14절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3) 행정의 간소화

a. 효율적인 조직 운영

- 교회 행정을 간소화하여 사역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집사를 세운 이유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4절)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이 사역을 압도해서는 안 됩니다.
-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질서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관료주의는 피해야 합니다.
-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한 위임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모

든 것을 한 사람이나 소수가 처리하려 하지 말고, 적절히 위임하고 분담해야 합니다.

b. 본질적 사역에 집중

-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를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정의합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진리를 선포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대위임령이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 에베소서 4장 11-12절은 교회 리더십의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

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나.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

1)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

a. 평신도 사역자 양성

-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는 정체성이 모든 성도에게 실현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 에베소서 4장 16절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체가 역사

해야 몸이 자랍니다.

-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성도에게 은사가 있고, 그것을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에 성취되었고, 현대 교회에서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b. 사역의 분산과 위임

- 출애굽기 18장 21-22절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려서 백성 위에 세워... 작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 사도행전 6장의 집사 선출도 같은 원리임

니다. 사도들이 모든 것을 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을 위임했습니다.

- 로마서 12장 6-8절은 다양한 은사에 따른 사역 분담을 가르칩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사역을 분담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2) 일터 선교의 활성화

a. 직장인 선교사 파송

- 현대교회는 모든 직장인을 선교사로 인식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24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요셉은 애굽에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현대의 직장인들도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도행전 18장 3절의 바울처럼, 직업을 가

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비량 선교의 모델입니다.

- 빌립보서 4장 22절의 "가이사 집 사람들" 처럼, 어떤 직장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b. 직장 사역 지원

- 교회는 직장인들의 선교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기도 지원, 훈련 제공, 네트워킹 등을 통해 직장 선교를 돕습니다.
- 에베소서 6장 19-20절에서 바울이 요청한 것처럼, 직장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는 말씀대로, 직장인들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록 훈련해야 합니다.

3) 지역사회 섬김과 봉사

a. 지역사회 필요에 응답

- 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36절은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 사도행전 9장 36절의 도르가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필요와 아픔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 야고보서 1장 27절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라는 말

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b.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역

-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잠언 31장 8-9절은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고 명령합니다.
- 이사야 58장 6-7절은 참된 금식을 정의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 미가 6장 8절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

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교회의 사
회적 책임을 보여줍니다.

다. 제자 훈련의 강화

1) 체계적인 신앙 교육

a. 단계별 성장 프로그램

- 교회는 새신자부터 성숙한 신자까지 단계
별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히
브리서 5장 12-14절은 영적 성장의 단계
를 보여줍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
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
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
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
-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영적 성장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 에베소서 4장 13-15절은 성장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b. 성경적 세계관 교육

- 현대교회는 성도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 골로새서 2장 8절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

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경고합니다. 세상 철학과 사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고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2) 멘토링 시스템 구축

a. 일대일 제자 양육

-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는 일대일 또는 소그룹 제자 양육의 원리입니다.

-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멘토링의 모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상호 성장을 돕는 멘토링이 필요합니다.

b. 삶으로 보여주는 제자도

-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자도는 가르침뿐 아니라 삶의 본을 통해 전수됩니다.
-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말합니다. 제자 양육은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 디모데후서 3장 10-11절에서 바울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네가 과연 따랐거니와”라고 말합니다. 삶 전체가 교육 자료입니다.

3) 실천적 제자도 훈련

a. 현장 중심의 훈련

-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현장 중심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은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기록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배우고, 직접 실천하면서

훈련받았습니다.

- 누가복음 10장 1절의 칠십인 파송처럼, 실제 사역에 참여하면서 배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론과 실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 사도행전 1장 1절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일부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제자훈련도 실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섬김과 희생의 훈련

-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정신이 제자훈련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 요한복음 13장 14-15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섬김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 빌립보서 2장 5-8절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3. 21세기 상황에 맞는 적용

가. 디지털 시대의 공동체

1)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a. 하이브리드 교회 모델

- 현대교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의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

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는 원리를 디지털 시대에 적용해야 합니다.

- 사도행전 17장 22-23절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것처럼, 현대의 디지털 광장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온라인 공간도 선교지입니다.
-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권면도 기억해야 합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 모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요한이서 12절의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기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라는 말씀처럼, 직접적인 만남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b. 디지털 도구의 현명한 활용

- 교회는 디지털 도구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잠언 4장 23절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대로, 디지털 콘텐츠와 관계에서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 빌립보서 4장 8절의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기준이 디지털 콘텐츠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2) 소셜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

a. 디지털 선교의 기회

- 소셜 미디어는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16절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는 명령이 디지털 공간에서도 실천되어야 합니다.
-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는 지리적 확장이 오늘날 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됩니다.
- 골로새서 4장 5-6절의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지혜가 온라인 소통에도 필요합니다.

b. 온라인 공동체 형성

- 디지털 공간에서도 의미 있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네 가지 요소(가르침, 교제, 떡 떼, 기도)가 온라인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 빌레몬서 7절의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를 통하여 평안을 얻었으므로"처럼, 온라인에서도 격려와 위로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의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는 것처럼, 물리적 만남만이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증거

1) 대화와 소통의 자세

a. 겸손한 대화의 자세

- 다원주의 사회에서 교회는 겸손하면서도 확신 있는 대화 자세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 골로새서 4장 6절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잠언 15장 1절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는 원칙이 종교 간 대화에도 적용됩니다.
- 디모데후서 2장 24-25절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가르칩니다.

b. 진리에 대한 확신

- 대화와 관용이 진리의 타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선

언을 확신해야 합니다.

- 사도행전 4장 12절의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진리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2) 문화적 민감성과 복음의 균형

a. 문화적 상황화

- 복음은 문화를 초월하지만, 문화적 옷을 입고 전달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23절의 바울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

자 함이라.”

-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인들에게 그들의 시인을 인용하며 복음을 전한 것처럼, 문화적 접촉점을 찾아야 합니다.
-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경계도 필요합니다. 문화적 적응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b. 복음의 불변성 유지

- 디모데후서 4장 2-3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경고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 히브리서 13장 8절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 마태복음 24장 35절의 “천지는 없어질지언

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 다음 세대를 위한 계승

1) 젊은 세대의 참여 확대

a. 리더십 기회 제공

- 젊은 세대에게 리더십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은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격려합니다.
- 예레미야 1장 7절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이가 아니라 소명이 중요합니다.
- 사무엘, 다윗, 요시아 등 성경의 많은 인물

들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b. 세대 간 멘토링

- 디도서 2장 3-5절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 시편 145편 4절의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송하며 주의 능력을 선포하리이다"라는 세대 간 신앙 전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4세대 제자훈련 원리(바울-디모데-충성된 사람들-다른 사람들)가 실천되어야 합니다.

2) 전통과 혁신의 조화

a. 본질의 보존

- 교회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유다서 3절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 디모데후서 1장 13-14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b. 방법의 혁신

- 본질을 지키면서도 방법은 혁신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는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 이사야 43장 19절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 마태복음 9장 17절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지속 가능한 교회 모델 구축

a. 영적 재생산 시스템

- 교회는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의 제자 삼는 명령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 에베소서 4장 11-16절의 유기체적 성장 모델을 따라야 합니다.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여 스스로 자라고 번식합니다.
- 사도행전 13-14장의 바울의 교회 개척 모

델처럼, 교회가 교회를 낳는 번식이 일어나야 합니다.

b. 다음 세대 리더 양육

-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원리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현재 리더들은 다음 세대 리더를 의도적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 열왕기하 2장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영적 계승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리더십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사도행전 20장 17-35절의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에 대한 고별 설교처럼, 리더십 이양을 위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 민수기 27장 18-23절의 모세에서 여호수아로의 리더십 계승처럼, 공개적이고 명확한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반 교재

초판 발행 2025. 9. 24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7348-2300(이안나목사)
홈 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 이 교재는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소속된 교회에서 성경공부/훈련을 위해 제작된 교재입니다. 교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에 가입하시고 최우수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추강추!
CHANCE

참여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결심했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비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